

경기다문화뉴스

The Gyeonggi Multicultural Family News

PAPAYA STORY

외국인주민을 위한 토달정보서비스 파파야 스토리

www.papayastory.com

지금 스마트폰에서 papayastory를 검색하세요

제326호 2026년 10월 01일 (격주간) 발행인 겸 편집인 송하성 등록번호 경기 다 50340 전화 031-8001-021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1번길 5(영화동), 3층 인쇄인 장용호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 164 (주)아이피디 / danews1@daum.net 후원계좌 경기다문화뉴스 110-408-662725 신한은행 <1쇄>



“다양성과 포용성이 함께하며 이주민과 선주민이 하나 되는 도시”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와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양해규)는 지난 9월 19일 수원야외음악당에서 수원시민과 외국인주민이 함께하는 제18회 다문화 한가족 축제를 개최했다. 행사는 미얀마카람보디아필리핀네팔 등 12개국 이주민의 세계민속의상 깃발퍼레이드로 시작했다. 화려한 식전행사는 화창한 주말 오후 행사를 즐기기에 나은 외국인주민과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 잡기에 충분했다. <관련 기사 4-5면> 송하성 기자

법무부, 자녀 돌보는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의 체류기간 연장한다

현재 다문화가정의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많은 결혼이민자의 부모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자녀가 11살이 되면 돌봐주던 할아버지, 할머니는 한국을 떠나야 한다. 자녀 양육 지원 대상 연령이 10세 이하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10살은 돌봄이 필요하고 11살은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다문화가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이 기준이 12세 이하로 상향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9월 18일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 방안을 논의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의 규정 및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재외동포청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의 국내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 현재 10세 이하인 자녀 양육 지원 대상 연령을 12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최장 7년인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의 체류 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했

다. 특히 자녀 돌봄을 위한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 초청 제도 자체가 보다 인도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7월 15일 열린 제1회 실무분과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의 규정 및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현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2021년 18만 7천 명에서 2025년 28만 4천 명으로 51.7% 증가했다.

이러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증가 추세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개정해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거주 지원 및 실태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결혼이민자 가정이 우리나라에서 안심하고 자녀를 키우고, 이민 2세대가 건강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어 23면, 영어 15면>

파파야스토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청소년활동 상담복지 현장을 찾아 위기청소년 지원과 상담 종사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30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문해 함께해 주요 사업과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를 점검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청소년예술제와 스포츠 동아리 한마당, 진로문화축제 등 주요 사업을 살폈다. 이에 이채명 의원은 또래와 교류하고 도전과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활동 기회를 넓히는 것이 청소년 위기예방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자살 자해 위험과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가족 갈등 등을 겪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긴급 지원, 치료 연계, 사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이 의원은 상담 건수 등 실적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위기가 실제로 완화됐는지 살피는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담 이후 일상 복귀와 관계 회복, 재위기 예방까지 이어지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이 의원은 31개 시군의 상담 인력과 의료복지 자원 차이가 청소년 지원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광역센터의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취약지역 전문인력 지원과 시군센터 역량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 시 고려하겠다”라며, “위기 앞에 혼자 서는 청소년이 없고, 청소년을 지키는 종사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전자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예산 관련 도의회와 ‘소통 협력’ 촉구



전자영(더불어민주당·용인4) 경기도의원이 “세입 확대는 추미에 도지사 혼자 뛰어다녀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소통과 협력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1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장에게 “도가 의회와 소통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 패싱한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지사가 국회에 찾아가 국비 증액을 요구하거나 보좌진 상대 설명회를 열었는데, 국회와 소통하기만 하면 도 예산이 모두 승인되고 의결되냐”고 말했다. 그는 “세입 조정을 위한 구조개혁에 나서는 급박한 상황일수록 의회와 한목소리를 내며 함께 가야 한다”며 “의회와 동행하지 않고 지사 혼자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세입 구조조정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어 전 의원은 “도정의 파트너는 경기도민이 선택한 대리인인 경기도의회 의원”이라며 “현장 최전선에서는 도의회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명확히 물었다. 그는 “도민과의 약속 이전에 세수 추계를 잘못해 본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제 와서 감액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세수 추계를 누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원인부터 규명하고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민 지원 예산을 삭감한다면, 그 결과는 책임을 도민에게 전가하는 꼴”이라며 “내년에는 공약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는데, 이는 도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정이 어렵고 힘들면 예산을 삭감할 수 있고, 고통 분담도 함께할 수 있고 세수 추계 예측도 실패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누군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지, 이를 도민이나 의회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자영 의원은 지역연론 기자 출신의 정치인으로 시민사회 활동을 거쳐 용인시의회에 입성한 뒤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원 재선에 성공했다. 언론과 시민사회, 기초·광역의회를 차례로 거친 이력은 전 의원의 의정활동이 생활현안과 현장 소통에 무게를 두는 배경이 되고 있다. 제12대 경기도의회에서도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에 선임돼 전반기 민주당 대표단의 핵심 축을 맡고 있다.

송하성 기자

'가족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 앞장서'

김용성 위원장,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수여식 참석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0월 1일(목)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고홀에서 개최된 ‘2026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수여식’에 참석해 인증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인증서를 수여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수여식은 일·생활 균형을 선도하고 가족친화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해 온 도내 기업 및 기관을 격려하고 관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용성 위원장을 비롯해 박연경 경기도여성가족국장, 유태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부문 상임이사 및 인증기업 대표·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용성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가족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앞장서 조성해 주신 기업 대표와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일과 가정의 균형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가 일터에서 존중받고 가정에서 행복을 누릴 때 기업의 생산성과 가치도 함께 올라갈 수 있다”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역시 도내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및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9월 15일 수원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서포터즈 단원 및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결혼이민자들이 일상적인 근로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노동법과 관련 제도를 이해하고, 자신의 노동권을 보호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노무사가 직접 강사로 나서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및 근로시간, 휴게시간과 연차휴가 등 근로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노동법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실제 근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노동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근로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

아보았다. 특히 한국의 노동환경과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실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했으며, 평소 궁금했던 노동 관련 내용을 직접 질문하고 노무사에게 답변을 듣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특강이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의 노동법과 근로환경을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근로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는 기자

야외활동 때 모기·진드기 조심해요 장안구보건소 감염병 예방 캠페인

수원시 장안구보건소가 지난 9월 16일 만석공원 야외음악당 광장 산책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기·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지난 6월 17일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된 데 이어 9월 9일 올해 첫 국내 환자가 확인됨에 따라 모기·진드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공원 이용객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보건소는 모기·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종류와 초기 증상, 야외활동 때 지켜야 할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올바른 기피제 사용법을 교육했다.

모기 물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밝은색 긴 옷을 착용하며 노출된 피부나 옷 등에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 10~11월 활동이 증가하는 털진드기 유충에 물리지 않으려면 풀밭 위에 바로 눕지 말고 돛자리를 사용해야 하며, 야외활동 후에는 즉시 옷을 세탁하고 샤워를 해야 한다.

장안구보건소 관계자는 “가을철에는 일본뇌염 매개 모기의 활동이 이어지고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위험도 커진다”며 “야외활동 전후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3개 보건소와 함께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문화가족도 이런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해야겠다. 이지는 기자

수원화성, 빛으로 피어난다...수원화성 미디어아트, 10월 6일까지 장안공원 일원 열려



수원화성을 아름다운 빛으로 구현하는 ‘2026 수원화성 미디어아트’가 9월 19일부터 10월 6일까지 매일 저녁 열린다. 다문화가족도 수원화성에서 여가를 즐겨보자.

2026 수원화성 미디어아트는 ‘새빛동락(同樂) : 수원화성(華城), 빛으로 피어나다 시즌1-아유가빈

(我有嘉賓)’을 주제로 화서문, 장안문, 장안공원 일원에서 매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열린다. 개막식은 9월 19일 오후 7시에 열린다. ‘아유가빈’은 ‘나에게는 귀한 손님이 있습니다’라는 뜻이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수원화성 미디어아트는 퍼포먼스를 확장하고, 체험·체류형 콘텐츠를 확충했다. 또 관람석을 확대하고, 글로벌 지식재산(IP) 브랜드와 협업해 반짝 매장을 운영하는 등 글로벌 관광객을 유입할 전략을 세웠다.

화서문에서는 미디어아트 작품 ‘인연의 빛’을 1일 3회(오후 7시 30분, 8시 30분, 9시 30분) 상영한다. 또 미디어아트와 연계한 빛과 소리, 무용, 불새, 나비드론 등 다채로운 퍼포먼스 공연이 진행된다. 장안문에서는 ‘왕의 길-동행’을 주제로 수원화성 관련 이야기하기 작품을 선보인다. 조

명, 음향, 특수효과가 어우러진 웅장한 미디어아트를 연출한다.

장안공원은 매체공원으로 꾸민다. 수원화성 성벽을 활용해 사운드 대화형 미디어아트를 연출하고, 숲 공간을 활용해 자이언트 플라워(대형 꽃), 보타닉(식물) 힐링존을 운영한다. 관람객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과 포토존을 조성하고, 수문장 시장과 지역 상권 연계 특화시장인 ‘행궁가게 수원가게’를 운영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19일 수원화성 미디어아트를 시작으로 제63회 수원화성문화제(10월 4~11일), 정조대왕 능행차(10월 4일)까지 3대 가을 축제가 23일 동안 이어진다”며 “많은 분이 수원의 가을 축제에 방문해 좋은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는 기자



“다양성과 포용성이 함께하며 이주민과 선주민이 하나 되는 도시”

수원시와 수원외복, ‘제18회 다문화 한가족 축제’ 개최...다채로운 프로그램 참가자 매료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와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양해규)는 지난 9월 19일 수원야외음악당에서 수원시민과 외국인주민이 함께하는 ‘제18회 다문화 한가족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준 시장을 비롯해 김미경 수원시의회 의장, 김영진 국회의원, 송소영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김용국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회장, 윤영민 수원시글로벌청 소년드림센터장, 고명진 수원중앙복지재단 대표이사, 경기도의원, 수원시의원 등 내외빈과 외국인주민 4천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먼저 행사는 미얀마·캄보디아·필리핀·네팔 등 12개국 이주민의 세계민속의상 깃발퍼레이드로 시작됐다. 화

려한 식전행사는 화창한 주말 오후 행사를 즐기기 위해 나온 외국인주민과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 잡기에 충분했다.

양해규 센터장은 개회선언을 통해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진 수원야외음악당에서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하는 오늘 행사가 모든 분들에게 아름답고 즐거운 추억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기념사에서 “이주민들은 우리의 미래를 함께 만드는 소중한 이웃이다. 여러분의 다양한 문화, 언어, 전통이 수원을 더 빛나게 한다”며 “다양성과 포용성이 함께하는 도시, 이주민과 선주민이 하나 되는 수원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미경 의장은 “오늘 행사에

많은 시의원님들이 참석하신 것은 의미가 바로 이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뜻”이라며 “수원에서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대한민국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주민의 대표인사도 이어졌다. 두 명의 이주민 대표는 “늘 함께 어울리는 즐겁고 따뜻한 행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외국인주민들도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며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깜짝 프로그램으로 ‘이주민의 연인’ 임명식도 열렸다. 재수원교민회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김미경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에게 ‘이주민의 연인’ 임명패를 수여했다.

이에 이재준 시장은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유공자 8명에게, 김미경 의장은 지역사회 봉사 유공자 3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축제는 세계인의 날 기념식, 다문화특별 퍼포먼스, 한국전통의상·세계민속의상 패션쇼, 특집공개방송 등으로 이어졌다. 세계 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문화부스도 30여개가 운영돼 행사를 풍요롭게 했다.

또 세계 전통공연, 태권도 시범, 초대 가수 엠프리즘 공연, 코믹마술쇼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졌다.

이날 행사는 이주민과 시민이 어울리며 서로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5시간 동안 진행됐다.

송하성 기자



“Suwon, a City Where Migrants and Local Residents Come Together as One” 18th Multicultural One-Family Festival

Suwon Special City(Mayor Lee Jae-jun) and the Suwon Migrant Community Service(Director Yang Hae-gyu) held the 18th Multicultural One-Family Festival at the Suwon Outdoor Music Hall on September 19, bringing together Suwon citizens and foreign residents.

The festival began with a flag parade featuring migrants from 12 countries, including Myanmar, Cambodia, the Philippines, and Nepal, dressed in traditional folk costumes from around the world. The colorful opening festivities captivated foreign residents and local citizens who had come out to enjoy the event on a bright weekend afternoon.

In his opening declaration, Director Yang Hae-gyu said, “I hope today’s event, which brings migrants and local residents together here at the Suwon Outdoor Music Hall under the blue sky and amid beautiful natural surroundings, will leave everyone with wonderful and joyful memories.”

In his commemorative address, Mayor Lee Jae-jun said, “Migrants are valued neighbors who are helping us build our future together. Your diverse cultures, languages, and traditions make Suwon shine even brighter.” He added, “We will continue to build Suwon into a city where diversity and inclusion thrive and where migrants and local residents come together as one.”

Representatives of the foreign resident community also delivered greetings. Two migrant representatives said, “Thank you for always creating warm and enjoyable events where we can all come together,” adding, “Foreign residents will also work hard in the local community and contribute in return.”

As a surprise program, an appointment ceremony for the title “Friend of Migrants” was also held. The Suwon Migrant Community Association presented Mayor Lee Jae-jun and Suwon Special City Council Chair Kim Mi-kyung with plaques appointing them as “Friends of Migrants.”

The festival continued with a ceremony commemorating Together Day, a special multicultural performance, fashion shows featuring traditional Korean attire and folk costumes from around the world, and a special live broadcast.

More than 30 multicultural booths offering visitors opportunities to experience food and cultures from around the world further enriched the festival. A variety of stage performances were also presented, including traditional performances from different countries, a taekwondo demonstration, a performance by guest singer M-Prism, and a comedy magic show.

The five-hour event provided a meaningful opportunity for migrants and local citizens to come together,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one another’s traditions and cultures,

파파야스토리



How do international students study and find employment in Korea?

Analysis of the Residency and Settlement Status of Foreign Students

Fields of study advantageous for international students seeking employment in Korea were found to be primarily in engineering and pharmaceutical sectors, such as molecular and nano-engineering (219 students, 84%), shipbuilding and marine engineering (223 students, 80%),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352 students, 79%), and chemical engineering (573 students, 77%).

Majors with large numbers of graduates-such as Business & Marketing (27% employment rate; 4,578 employed), Media (35%; 996), Hotel & Tourism (20%; 951), International Studies (34%; 954), and Foreign Languages & Literature (26%; 610)—saw higher absolute numbers of employed graduates compared to STEM fields, yet their employment rates remained low. These statistics exclude international students who left the country after graduation.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has released a report titled "Current Status of Foreign Student Residency and Settlement," which analyzes the entire lifecycle of foreign students-spanning admission, enrollment, graduation, employment, and long-term settlement.

This analysis utilized data to examine trends among foreign students of diverse nationalities-

such as which regions and academic majors are seeing an increase in students-and to track how many students transition from completing their studies to finding employment and settling in Korea.

To this end, the study analyzed data-including countries of origin, domestic places of residence, majors, and academic performance-regarding the 530,000 international students who enrolled in Korea between 2019 and 2025, as well as the post-graduation settlement patterns of the 150,000 international students who graduated from Korean universities during the same period.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plans to use these data-driven statistical analyses to refine polici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and to formulate immigration policies aimed at fostering regional economic growth.

A detailed analysis of the findings reveals that the propor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leaving Korea after graduation was highest among doctoral degree holders (81.3%), followed by bachelor's (71.8%), master's (71.3%), and associate degree holders (26.4%); conversely, the rate of transition to employment or residency/permanent residency visas was highest among

associate degree holders (55.1%).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who switched to the "Specially Designated Activities" (E-7) visa status after graduation, 32% (3,701 individuals) settled in Korea by obtaining Resident (F-2) or Permanent Resident (F-5) status; in contrast, 50% (2,145 individuals) of those who switched to the "Research" (E-3) status left the country, indicating a high rate of departure.

Excluding international students who left the country after graduation, the employment rate for graduates stood at 34.3%; by nationality, the rates were highest among students from India, followed by Pakistan and Indonesia. However, these statistics appear not to account for international students who left the country because they were unable to secure employment in Korea despite wishing to do so. As of 2024, the employment rate for domestic university graduates was 69.5%.

In terms of the number of employed graduates by nationality, Vietnam ranked highest (6,495), followed by China (4,597) and Uzbekistan (1,263).

One interesting statistic concerns the countries of origin for international students with high academic performance....(중략, 한글 기사 15면)

파파야스토리

นักศึกษาต่างชาติ, กำลังศึกษาและทำงานในเกาหลีอย่างไร? 유학생 체류·정주 현황 분석

พบว่าสาขาวิชาที่ได้เปรียบในการหางานในเกาหลีสำหรับนักศึกษาต่างชาติ ได้แก่ สาขาวิศวกรรมโมเลกุลและนาโน (219 คน, 84%) วิศวกรรมต่อเรือและวิศวกรรมทางทะเล (223 คน, 80%) วิศวกรรมวัสดุใหม่และวัสดุศาสตร์ (352 คน, 79%) และวิศวกรรมเคมี (573 คน, 77%) ซึ่งส่วนใหญ่เป็นสาขาวิศวกรรมและเภสัชศาสตร์บางสาขา

สาขาวิชาที่มีจำนวนผู้สำเร็จการศึกษามาก ได้แก่ สาขาวิชาบริหารธุรกิจและการตลาด (27%, มีงานทำ 4,578 คน), สื่อ (35%, 996 คน) โรงแรมและการท่องเที่ยว (20%, 951 คน), นานาชาติศึกษา (34%, 954 คน) และภาษาต่างประเทศวรรณคดีต่างประเทศ (26%, 610 คน) เมื่อเทียบกับสาขาวิทยาศาสตร์และวิศวกรรมศาสตร์แล้ว แม้จะมีจำนวนผู้มีงานทำมากกว่า แต่อัตราการมีงานทำกลับอยู่ในระดับต่ำ สถิตินี้คำนวณโดยไม่รวมจำนวนนักศึกษาต่างชาติที่เดินทาง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หลังสำเร็จการศึกษา

สำ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และนโยบา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ได้เผยแพร่ผลการวิเคราะห์ 「สถานการณ์การพำนักและการตั้งถิ่นฐานของนักศึกษาต่างชาติ」 ซึ่งวิเคราะห์กระบวนการทั้งหมด

ของนักศึกษาต่างชาติ ตั้งแต่ “การเข้าศึกษา-การศึกษ-การสำเร็จ การศึกษา-การทำงาน-การตั้งถิ่นฐาน”

การวิเคราะห์ครั้งนี้เป็นการตรวจสอบโดยอาศัยข้อมูลว่า นักศึกษาต่างชาติหลากหลายสัญชาติที่เข้าศึกษาและสำเร็จการศึกษาจาก มหาวิทยาลัยในประเทศ “มีจำนวนเพิ่มขึ้นในภูมิภาคใดของประเทศ และในสาขาวิชาใด” รวมถึง “มีนักศึกษาต่างชาติจำนวนเท่าใด ที่หลังจากสำเร็จการศึกษาแล้ว สามารถเข้าสู่การทำงานและการตั้งถิ่นฐานในประเทศได้ต่อเนื่อง” เป็นต้น

เพื่อการนี้ ได้วิเคราะห์ข้อมูลของนักศึกษาต่างชาติ 530,000 คน ที่เข้าศึกษาในประเทศตลอดระยะเวลา 7 ปี ตั้งแต่ปี 2019 ถึง 2025 โดยพิจารณาถึงประเทศต้นทาง, ที่อยู่อาศัยในประเทศ, สาขาวิชา, ผลการเรียน, และอื่นๆ รวมถึงวิเคราะห์ว่านักศึกษาต่างชาติ 150,000 คน ที่สำเร็จการศึกษาจากมหาวิทยาลัยในประเทศในช่วงเวลาเดียวกันนั้น หลังสำเร็จการศึกษาแล้วมีการตั้งถิ่นฐานในประเทศอย่างไรบ้าง

สำ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และนโยบา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จะนำผลการวิเคราะห์สถิติที่อาศัยข้อมูลเป็นพื้นฐานมาใช้ในการกำหนดนโยบายสำหรับ นักศึกษาต่างชาติให้

มีความเป็นรูปธรรมมากยิ่งขึ้น ขณะเดียวกัน จะนำไปใช้ในการจัดทำนโยบายด้านการย้ายถิ่นฐานเพื่อการเติบโตทาง เศรษฐกิจของภูมิภาคอีกด้วย

เมื่อพิจารณารายละเอียดของเนื้อหาที่เผยแพร่ พบว่าสัดส่วนของนักศึกษาต่างชาติที่เดินทางออกจากเกาหลีหลังสำเร็จการศึกษา เรียงตาม ลำดับดังนี้ ระดับปริญญาเอก 81.3% > ระดับปริญญาตรี 71.8% > ระดับปริญญาโท 71.3% > ระดับอนุปริญญา 26.4% ขณะที่การเปลี่ยน ประเภทวิชาไปเป็นวิชาทำงานและวิชาพำนัก/วิชาถาวรนั้น ระดับอนุปริญญา มีสัดส่วนสูงที่สุดที่ 55.1%...(중략)

파파야스토리



QR코드 스캔 후
파파야스토리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국기를 선택해 언어를
변경하세요.



“이주배경청소년도 수원을 담고 표현해요”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수원 방문의 해 체험활동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수원 방문의 해 맞아 지난 9월 22일, 「수원을 담다, 수원을 표현하다」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이주배경청소년 36명은 수원화성 연무대에서 플라잉수원(열기구) 체험을 하며 수원화성 성곽 주변뿐 아니라 수원 도시를 한 눈에 살펴봤다. 이후 방화수류정으로 이동하여 자신이 본 수원을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수원 화성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글로 작성하는 백일장에 참여했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창작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글짓기 분야는 청소년들이 한국어와 모국어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그림 활동에서는 수원화성을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경험을 표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완성한 작품은 참여자들이 직접 발표하며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공유했다. 이번 체험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오다가다 열

기구를 본 적이 있는데 직접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았다. 무서웠지만 수원 풍경을 높은 곳에서 볼 수 있어서 신기했다.”, “친구들과 함께 피크닉 세트에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청소년들의 그림·글짓기 작품은 센터 내부 이용자 및 강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통해 분야별 우수작품을 선정하고 시상과 부상으로 수원굿즈 아이템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을 연 6회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마지막 1회기를 남겨두고 있으며, 10월 중 SDGs(식량) 관련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계시민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은 센터 홈페이지(www.swglobalyouth.com) 내 On-tact 상담 또는 전화 070-4125-3308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이주배경청소년 실무역량 강화 ‘자격취득을 넘어 현장으로!’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비전클래스 제과기능사 자격취득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청소년들이 배운 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제과·카페 분야의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8월 18일부터 현장실습의 기회를 마련했다.

자격취득자 중 8명이 현장실습을 희망해 1:1 면접 선발 과정을 거쳐 총 4명이 선정됐다. 현장실습은 화서동 ‘디저트 한입’과 호매실동 ‘슬로 칠보하우스’ 2곳의 지역사회 카페와 연계해 진행됐다. 청소년들은 각각 약 60시간 동안 디저트 제조, 고객 응대, 매장 관리 등 카페 운영 전반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직접 경험했다. 센터는 참여 청소년들에게 일정 금액의 실습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실제 근무 환경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직업생활에 필요한 책임감과 현장 적응력을 기를 수 있었으며, 일부 참가자는 실습 종료 후 실습처의 아르바이트로 연계되어 근무를 이어가는 성과로 이어졌다.

현장실습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제과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 앞으로 나만의 가게를 운영해보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앞으로도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자격취득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경험을 쌓으며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자립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한다.

이지은 기자

수원글청, 다양한 국적의 이주배경청소년이 함께한 제과 체험 ‘무지개빛 파티시엘’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제과 분야에 관심 있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을 대상으로 9월 14일(월), 18일(금), 21일(월), 23일(수) 총 4회에 걸쳐 제과 특강 ‘무지개빛 파티시엘’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이주배경청소년이 제과 활동을 직접 체험하면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참여자의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 중국 청소년 대상 2회, 베트남 청소년 대상 1회, 기타 국가 청소년 대상 1회로 나누어 운영했다.

특히 기타 국가 회차에는 러시아, 중앙아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태국 등 다양한 국적의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참여해 함께 제과 활동을 경험했다.

청소년들은 티라미수를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을 함께하며 또래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다양한 국적의 청소년들이 서로 어울리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특강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친구들과 함께

제과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즐거웠고, 특히 같은 나라에서 온 새로운 친구를 사귄 수 있어서 좋았다”며 소감을 전했다.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앞으로도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와 직업을 직접 경험하며 자신의 적성과 관심 분야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진로·자립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www.swglobalyouth.com) 내 On-tact 상담 또는 전화(070-4125-330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26년 8월 31일 기준, 총 21개국 출신의 다양한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일정

2026.
10.14.~11.18.(6회)
19:30~21:30

장소

수원시청 중회의실
(별관 1층)

<토크콘서트>

당사자들의 이야기

이주민, 재난 피해자,
여성차별 현장의 이야기

게스트

박동찬 김호경 미래
경계인의원소리 수원시민 이태환참사 수원여성차별
연구소장 피생자 유가족 활동가

1회 10.14.수

혐오의 언어, 차별의 자연화

최호근 교수
고려대학교 사학과

「제노사이드」
「역사문화역 수업」
-저자

2회 10.21.수

우리 결의 소수자:
혐오를 넘어 평등으로 가는 법

박한희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

「무지개를 변호하다」
-저자

3회 10.27.화

**혐오와 능력주의,
장애 차별의 두 얼굴**

김도현 작가
노들장애인공리소 대표

「장애학의 사선」
-저자

4회 11.5.목

정당한 분배, 부당한 낙인

조문영 교수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연루됨: 인류학자의
세상읽기」
-저자

5회 11.12.목

**가능한 연대:
존엄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대응**

이라영 작가
「한대만을 권리, 한대할 용기」,
「침묵」, 「말을 부수는 말」
-저자

6회 11.18.수

**2026_수원시민
인권 아카데미**

수원시민 인권아카데미는 인권의 눈으로 사회를 성찰하는 인문학 강연입니다.
전문가의 통찰과 시민인권교육기획단이 이끄는 생생한 토크를 통해,
우리 결의 '정상성'이라는 편견을 허물고 함께 존엄하게 살아갈 대안을 모색합니다.

**'혐오의 시대,
어떻게 존엄하게 살 것인가?'**

신청기간 2026.9.21.(월) ~ 마감시
신청방법 QR코드 스캔 각 회차별 별도 신청 가능
참가대상 시민 누구나 | 참가비 무료

문의
수원시 인권담당관
031-5191-2666

수원특례시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세계음식문화체험

베이커리로 보는 세계문화

참여자 모집

모집대상 및 인원

성인 40명, 회기별 10명
(이주민 7명, 선주민 3명)

교육 일정

'26년 10월 6일(화)~10월 27일(화)
매주 화요일 10:00~14:00(총4회)

교육 장소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8층
직업능력개발실

신청 일정

2026년 9월 17일(목) 10시부터
~선착순 마감

참가비

회기별 10,000원
입금 계좌 개별 안내

신청방법

센터 홈페이지 -> 교육신청

회기별 프로그램

차시	일정	내용
1차	10월 6일	미국: 스모어 쿠키
2차	10월 13일	일본: 생크림 카스테라
3차	10월 20일	프랑스: 과일타르트
4차	10월 27일	독일: 초코 체리케이크

문의 **070-4440-9904**

신청 바로가기



사회복지법인 수원중앙복지재단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SUWON MIGRANT COMMUNITY SERVICE

경기도 수원시

**복용 후 남아 있는 마약류 의약품이 있다면
참여약국으로 반납해주세요!**



**내가 처방받은 약을 가족·지인이 복용하면
환각, 경련, 사망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의약품은 수면제, 신경안정제, 마약성진통제 등을 포함합니다.

약국	주소	약국	주소
아이슬약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38, 1층 (인계동)	한결약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 80 정면메이저 411호 (정자동)
수약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202 (금곡동)	정약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태장로 73 (영포동)
아기배약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진로31번길 15 (당수동)	우리대학약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85 (원천동)
보성약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40 골든타워 3층 312호 (조원동)	광교약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 277 B2-28호 (원천동)
건강누리약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60 (정자동)		

마약으로부터 당신의 일상을 지키고 싶다면 **1342**에 문의하세요!

KPA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년 하반기 이주근로자 직업능력개발교육

3T미만 지게차운전과정 모집

| 지원자격 수원인근 지역 거주 성인등록 이주민 6명 (취업 가능 비자)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 과정 이수 후 3톤미만 지게차 운전면허증 발급 (엔진식, 전통식 지게차 모두 운전 가능)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 과정 이수 후 교육이수증 발급 (실내 전통식 지게차만 운전 가능)

| 교육일정 10월 18일(일), 10월 25일(일), 2회진행
오전 9시 ~ 오후 4시

| 교육비 30만원 (센터 지원 : 20만원, 본인 부담 : 10만원)

| 모집일정 26. 9.20(일) 오전 10시~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1. 신청서 작성 : 센터 홈페이지 - 교육신청
https://www.suwonmcs.com/bbs/write.php?bo_table=0604
2. 담당자와 시간 약속 후 센터 방문 서류작성 (준비물: 1종, 2종 보통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3. 교육원에 자부담 교육비 10만원 입금

| 교육문의 070-4632-7134

센터에서 진행하는 3톤이상 지게차운전기능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바리스타 2급 자격증 과정과 중복신청 불가능 합니다.

교육신청 바로가기



사회복지법인 수원중앙복지재단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SUWON MIGRANT COMMUNITY SERVICE

‘도시락(City 樂) 마켓’ 열린다

수원특례시, 도시농부와 시민이 함께해요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10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탐동 시민농장 중앙 잔디광장에서 ‘도시락(City 樂) 마켓’을 연다.

도시락 마켓은 시민과 도시농부, 도시농업단체가 함께 도시농업의 가치와 농업의 즐거움을 나누는 행사다. 도시

생태농업네트워크, 수원시도시농업전문가협회, 소상공인협회 등이 참여한다. ▲직접 수확한 텃밭 작물을 활용한 건강 도시락 만들기 ▲도시농부·도시농업단체 농산물 직거래 장터 ▲지역 농업인과 도시농업을 알리는 홍보·체험·판매·먹거리관 ▲지역 예술인 거리 공연 등을 운영한다.

수원시 캐릭터 ‘수원이’ 대형 공기조형물을 활용한 포토존을 조성하고, 포토존과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도시락 마켓은 도시농부와 도시농업단체,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라며 “대형 수원이와 기념사진을 찍고 텃밭 작물로 도시락을 만들며 가족·친구와 즐거운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족도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해보자. 이지은 기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시작

수원특례시, 어린이·임신부·어르신 대상 진행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9월 21일부터 ‘2026-2027분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했다.

국가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2012년 1월 1일~2026년 8월 31일 출생자),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다.

어린이와 임신부는 9월 21일부터 접종할 수 있고, 어르신은 ▲75세 이상 10월 6일 ▲70~74세 10월 12일 ▲65~69세 10월 15일부터 연령별로 접종을 시작한다. 국가사업 접종 기간은 2027년 4월 30일까지다.

수원시는 국가 무료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의료취약계층에게도 무료 접종을 지원한다.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14~64세 수원시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 1~3급), 국가유공자 본인이 대상이다. 국가사업 대상자는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수원시 자체사업 대상자는 수원시 관내 위탁의료기관 173개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 지원 백신은 인플루엔자 3가 백신이다.

접종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임신부는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 등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자체사업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카드·국가보훈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보건소 홈페이지 ‘정보광장→보건소 게시판→보건소식’에 게시된 ‘2026-2027분기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보건소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만큼 무료 접종 대상자는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받길 바란다”며 “의료기관 방문 전 대상별 접종 기간과 준비 서류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세계 131개국 병따개 한자리에

화홍사랑채, ‘특별한 세계여행’ 상설전 열어



2026~2027 수원방문의 해 추진위원회 김훈동 공동위원장이 반세기 동안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병따개(오프너) 2290점을 수원시에 기증했다. 기증식은 23일 화홍사랑채에서 열렸다.

수원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활동해 온 김훈동 공동위원장은 전 세계의 병따개를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소장품을 기증했다. 수원특례시는 화홍사랑채에서 세계 131개국의 병따개를 선보이는 상설전 ‘병따개로 만나는 특별한 세계여행’을 개최한다. 기증받은 병따개 가운데 일부

를 선별해 전시하고, 분기별로 전시품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상설전을 운영한다. 작은 병따개에 담긴 각 나라의 문화와 디자인, 여행의 추억을 살펴볼 수 있다. 화홍사랑채는 수집품에 담긴 이야기를 관람객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이날 기증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방문의 해 추진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김훈동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반세기 동안 세계 131개국에서 모은 소중한 수집품을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기증해 주신 김훈동 공동위원장께 감사드립니다”며 “2026-2027 수원방문의 해를 맞아 화홍사랑채를 찾는 분들이 세계 각국의 병따개를 보며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수원 여행의 색다른 즐거움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돌봄도시’ 수원 세계에 알렸다

수원특례시, 유엔여성기구 돌봄정책토론회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18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돌봄 의제와 민관협력(PPP)을 통한 돌봄시스템 전환 추진 정책포럼’에 참가해 수원새빛돌봄의 추진 경험과 성과를 발표했다.

유엔여성기구(UN Women)가 주최하고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시티넷(CityNet)이 협력한 이날 토론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부·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시민사회·학계·민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돌봄도시 사례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민관협력, 돌봄 자원 조달 방안 등을

공유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돌봄시스템 전환 방향을 논의했다.

‘시민의 돌봄을 도시의 책임으로, 수원새빛돌봄이 만드는 돌봄도시 수원’을 주제로 발표한 김매옥 수원특례시 돌봄정책과장은 수원새빛돌봄의 주요 내용과 성과로 ▲시민참여형 정책 설계 ▲돌봄의 공공책임 강화 ▲지역사회 협력 체계 운영 ▲시민 일상 유지 지원 등을 소개했다.

또 네팔·필리핀 발표자와 함께 아시아 지역 돌봄시스템 전환 경험을 공유하고, 지방정부의 역할과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새빛돌봄의 경험과 성과를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계자들과 공유해 뜻깊었다”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돌봄도시 수원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로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수원 팔달문시장, ‘제14회 다문화가요제’ 개최

‘2026년 제14회 팔달문시장 다문화가요제’가 19일 팔달문시장 팔달문고객지원센터 앞에서 열렸다.

팔달문시장상인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을 찾는 다문화 고객과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지역예술단 등의 식전공연과 초청가수 공연, 경품 이벤트가 펼쳐졌으며, 개막식에 이어 다문화가요제 본선과 수상자 발표 및 시상 등이 진행돼 팔달문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했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오늘 가요제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음악을 하나 되는 즐거운 화합의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전통시장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

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장과 의원들은 행사장을 찾아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음악을 통해 소통하고 어우러지는 축제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김미경 의장은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노래와 웃음으로 하나 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팔달문시장상인회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축제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고, 팔달문시장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수원특례시의 회도 다양한 시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백성과 이룬 만년대업, 수원화성 수원화성박물관, 특별기획전 개최

수원화성박물관이 수원화성 완공 230주년을 기념해 9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기획전 ‘백성과 함께 이룬 만년대업, 수원화성’을 연다.

이번 전시는 정조대왕과 백성이 힘을 모아 수원화성을 축성한 과정과 그 의미, 완공 이후 역사적 가치를 계승해 온 과정을 관련 유물과 기록으로 조명한다. 올해는 수원화성 완공 230주년이자 정조대왕 즉위 250주년이고, 2027년은 수원화성 세계유산 등재 30주년이다.

전시는 ▲정조대왕의 축성 기획에서 완공까지 ▲축성에 참여한 공로자들 ▲위로와 격려, 함께한 잔치 ▲위대한 업적의 계승자들 등 4개 주제로 구성된다.

정조대왕이 백성의 어려움을 살피며 수원화성 축성을 추진한 과정부터 수많은 관원과 장인이 참여한 축성, 완공을 기념한 낙성연, 수원화성의 가치를 이어온 노력까지 살펴볼 수 있다.

주요 전시 유물은 ▲흥년으로 어려움을 겪는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화성 축성을 잠시 중단하도록 한 1794년 ‘윤음’ ▲조윤형이 쓴 원본 ‘방화수류정 현판’의 탁본 ▲수원화성 축성의 전 과정을 기록한 「화성성역의궤」(국가유산 보물, 세계기록유산) ▲화성성역소 총리대신을 맡았던 ‘채제공 초상’(국가유산 보물) 등이다.

원본 ‘방화수류정 현판’ 탁본은 이번 전시에서 시민에게 처음 공개된다. 축성 당시 장안문·팔달문 현판의 글씨를 쓴 조선 후기 명필 조윤형의 글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지은 기자

수원특례시, 캄보디아 수원마을 초등학교 증축 ‘시민공동추진단’ 출범...시민모금 시작



수원시국제교류센터와 사단법인 행복한캄보디아모임이 17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캄보디아 수원마을 초등학교 증축 시민공동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수원마을 초등학교 증축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출범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시민·지역단체·국제개발협력 관계자 등이 참석해 수원마을 지원사업의 20년 성과와 현지 졸업생의 성장 사례를 공유하고 시민 협력의 출발을 함께했다.

캄보디아 시엠립주 프놈끄라움에 있는 수원마을

은 수원시와 시민·민간단체, 현지 주민이 2007년부터 함께 조성해 온 국제개발협력 현장이다. 수원시는 학교 건립과 특성화 교육, 의료봉사, 물품 후원 등을 지원해 왔다. 이번 초등학교 증축은 학생 증가와 1부제 수업 전환에 따른 교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다. 2027년 2월부터 12월까지 2층 건물 2동을 지어 총 16개 교실을 확충할 계획이다.

수원시와 행복한캄보디아모임, IBK기업은행 동수원지점은 ‘시민 모금의 원활한 추진과 참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행정 지원을, 행복한캄보디아모임은 시민 모금과 기부금 관리를 총괄한다. IBK기업은행 동수원지점은 후원기관으로서 시민 모금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협력한다.

기부금 전달식도 열렸다. IBK기업은행 동수원지점이 3억 원, 행복한캄보디아모임이 5000만 원, 수원시장인연합회와 수원시여성자문위원회가 각각 1000만 원을 전달하며 시민 모금의 시작을 알렸다.

시민 모금은 수원마을 조성 20주년을 맞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100명이 시작해 2027명의 마음으로 완성한다’는 의미를 담아 시민·단체·기업의 참여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단법인 행복캄 관계자는 “초등학교 증축에 뜻을 모아주신 시민과 단체에 감사드립니다”며 “아이들에게 필요한 새 교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민모금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시국제교류센터 관계자는 “이번 출범식은 수원마을과 함께한 2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협력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였다”며 “수원과 시엠립을 잇는 국제교류와 협력이 지속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마을을 20년 동안 함께 가꿔온 시민과 민간의 협력이 초등학교 증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시민모금과 증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함께 만들고 나누며 가까워지는 시간
용인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대상 '명절체험' 운영

용인시가족센터는 지난 9월 18일과 19일 양일간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과 베트남의 명절문화를 체험하는 '명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영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의 다문화가족이 참여했으며, 명절음식을 직접 만들고 서로의 문화를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9월 18일에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추석 음식인 삼색송편과 육전을 만드는 '한국 추석 명절체험'을 진행했으며, 19일에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베트남 전통 모자 만들기과 짜조, 분짜 만들기 등 '베트남 명절체험'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이 한국과 베트남의 명절문화와 음식을 직접 체험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베트남 명절체험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해 자녀들이 부모의 모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참여자는 "베트남 언니, 중국 언니와 함께 요리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며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용인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이 다양한 나라의 음식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서로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 간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회 내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평생학습관 제2차 단기교육 수강생 모집

용인특례시는 기흥평생학습관에서 외국어·취미·조리 등 10개의 문화 강좌에 참여할 시민 130명을 10월 6일부터 8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은 10월 12일부터 12월 4일까지 8주에 걸쳐 진행된다.

강좌는 ▲원어민 직장! 마이클과 함께하는 현지 생활 영어(초급/중급) ▲오일파스텔 힐링 드로잉 ▲몸과 마음의 조화, 한의사에게 배우는 '심신 마음챙김' ▲재미 톡톡! 시니어 보드게임 지도사 ▲듣는 디자인, 보는 클래식: 경계를 허무는 예술 인문학 융합 클래스 ▲나를 위한 시간, 감성 힐링 목공예 ▲계절을 담은 제철 김치 & 건강 밑반찬 ▲나를 위한 한끼, 따뜻한 집밥 ▲우리 맛 한입, 달콤 수제 디저트 등으로 구성됐다. 19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한 사람당 2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용인에 주소를 둔 기업에 다니거나 재외국민, 결혼 이민자도 해당된다. 신청은 기흥평생학습관 누리집(<https://lll.yongin.go.kr>)에서 하면 된다. 수강료는 강좌에 따라 2~3만원이며, 재료비는 별도 부담해야 한다. 용인시는 대상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해준다. 저소득층 가구 한 사람당 한 강좌의 수강료 전액을, 병역명문가 가족엔 50%, 다자녀 가정의 부모엔 30% 등이다.

이지은 기자

남사도서관, 가을 맞아 다채로운 독서문화 행사 마련해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남사도서관은 독서하기 좋은 10월을 맞아 다문화가족과 시민들이 책과 문화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어린이를 위한 낭독수업 '별아리 낭독반'은 10월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5시까지 2층 다목적실에서 진행된다.

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 10명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 신청은 9월 22일 오전 10시부터 남사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야외에서 책을 읽으며 가을정취를 즐길 수 있는 '10월 야외 독서텐트존'은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도서관 야외 텍에서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오전과 오후 각 5팀이 이용할 수 있다. '미디어아트 쇼'가 열리는 17일에는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용 신청은 당일 오전 9시 30분부터 현장에서 가능하다. 각 프로그램의 참가 신청은 별도 안내된 경우를 제외하고 남사도서관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용인특례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와 임신부 접종 시작해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인플루엔자(독감)가 유행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지난해보다 한 달 이상 이른 9월 11일 발령되며 지역사회에 감염 추세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에 시는 감염 시 폐렴 등 중증 합병증 위험이 큰 어르신과 어린이 등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접종 일정을 긴급 조정했다. 용인시는 9월 28일 예정이던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작일을 9월 21일로 앞당겼다. 어르신 접종 일정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와 임신부 9월 21일 ▲75세 이상 10월 6일 ▲70~74세 10월 12일 ▲65~69세 10월 15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이번 절기부터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기존 13세에서 14세까지 확대돼 2012년생도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용인시는 국가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는 60~64세, 15~59세 의료급여수급자와 장애인, 출산 후 6개월 미만 산모 등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접종은 10월 19일부터 시작한다. 다문화가족도 기준에 해당하면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일정이 앞당겨져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0월 12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2일부터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동시접종이 가능하다. 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과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예년보다 이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예방접종 일정을 조정한 만큼 대상자는 변경된 접종 일정을 확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Bộ Tư pháp và Tổng cục Bưu chính Hàn Quốc ký thỏa thuận hợp tác hỗ trợ ổn định cuộc sống cho kiều bào và gia đình đang cư trú tại Hàn Quốc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và Chính sách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thuộc Bộ Tư pháp (Cục trưởng Cha Yong-ho) và Cục Bưu chính thuộc Bộ Khoa học, Công nghệ và Thông tin và Truyền thông (Cục trưởng Park In-hwan) đã ký thỏa thuận hợp tác vào ngày 28 tháng 8 vừa qua tại Bưu điện Gwanghwamun, quận Jongno, Seoul, nhằm hỗ trợ điều kiện ổn định cuộc sống cho kiều bào và gia đình đang cư trú tại Hàn Quốc.

Theo thỏa thuận này, kiều bào đang cư trú tại Hàn Quốc (người có tư cách lưu trú (F-4) Kiều bào ở nước ngoài và (H-2) Lao động theo diện thăm và làm việc) cùng gia đình sẽ được hưởng các ưu đãi sau: giảm 10% phí khi sử dụng dịch vụ chuyển phát nhanh quốc tế (EMS·EMS Premium), được áp dụng lãi suất ưu đãi tối đa 0,15% khi sử dụng dịch vụ tiền gửi tại bưu điện, và được ưu đãi 30% về tỷ giá khi sử dụng dịch vụ chuyển tiền ra nước ngoài.

Thông qua những chính sách hỗ trợ này, dự kiến sẽ góp phần giảm bớt gánh nặng chi phí sử dụng dịch vụ bưu chính giữa kiều bào và gia đình tại quê nhà, đồng thời giúp duy trì sự gia

tiếp ấm áp và gắn kết tình cảm giữa các thành viên trong gia đình, vượt qua khoảng cách địa lý và biên giới.

Tại 37 Trung tâm Hỗ trợ Cư trú dành cho Kiều bào trên toàn quốc, các nội dung hỗ trợ theo thỏa thuận lần này, danh sách các bưu điện có thể sử dụng dịch vụ và cách thức sử dụng sẽ được hướng dẫn và tuyên truyền.

Kiều bào và gia đình có nhu cầu sử dụng các dịch vụ này có thể đến trung tâm gần nhất để được tư vấn và tìm hiểu thông tin chi tiết.

Ông Cha Yong-ho, Cục trưởng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và Chính sách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thuộc Bộ Tư pháp, cho biết: “Thông qua thỏa thuận lần này, chúng tôi có thể mở rộng các chương trình hỗ trợ ổn định cuộc sống thiết thực, giúp kiều bào có thể cảm nhận được sự hỗ trợ trong quá trình định cư tại Hàn Quốc. Trong thời gian tới, chúng tôi sẽ tiếp tục nỗ lực hỗ trợ kiều bào đang cư trú tại Hàn Quốc ổn định cuộc sống và hòa nhập xã hội.”

Ông Park In-hwan, Cục trưởng Cục Bưu chính, cho biết: “Chúng tôi kỳ vọng thỏa thuận hợp tác

lần này sẽ mang lại sự hỗ trợ thiết thực, giúp kiều bào và gia đình đang cư trú tại Hàn Quốc thuận tiện hơn trong việc sử dụng các dịch vụ bưu chính và tài chính trong cuộc sống hằng ngày. Trong thời gian tới, chúng tôi sẽ tiếp tục mở rộng hợp tác với các cơ quan liên quan, tận dụng mạng lưới bưu điện trên toàn quốc để cung cấp các dịch vụ công cần thiết cho người dân và kiều bào đang cư trú tại Hàn Quốc.”

Thông qua thỏa thuận hợp tác lần này,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và Chính sách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thuộc Bộ Tư pháp sẽ tạo dựng môi trường để kiều bào có thể duy trì việc giao lưu thường xuyên với gia đình tại quê nhà và duy trì mối quan hệ gia đình ngay cả khi đang sinh sống tại Hàn Quốc.

Đồng thời, trong nửa cuối năm nay, cơ quan này có kế hoạch xây dựng và tích cực triển khai “Định hướng cơ bản và các nhiệm vụ thúc đẩy chính sách dành cho kiều bào”, với những nội dung hỗ trợ mà kiều bào có thể cảm nhận được trong cuộc sống hằng ngày. <한글 기사 지난호 21면> 파파야스토리

아빠와같이 GO! 슬로깅 챌린지!

슬로깅이란? 걷듯이 천천히, 대화하며 가볍게 달리는 운동

행복으로 가는 가족변화의 중심 모든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GOOD DAY GOOD DAY We are Family! LET'S SLOW JOG!

신청 바로가기

일시 2026. 10. 17. (토) 10:00~13:00	장소 구갈레스피아 (신갈천 일대)	대상 용인시 거주 아버지와 자녀 를 포함한 가족 200명 (단, 아버지와 자녀는 필수)	내용 - 아빠와 함께하는 슬로깅 (왕복 1.8km, 1시간 소요) - 가족공연 -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

함께하는 슬로깅!

천천히, 함께! 건강한 우리가족!

버블쇼&매직쇼 공연

신나는 버블쇼와 매직쇼로 웃음이 가득!

체험 부스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이 기다려요!

신청방법 구글폼 신청

문의 070-7477-8540

※ 선착순 100가족에게는 소정의 상품 증정! ※ 가족당 1명

한국어로 더 가까워지는 미래!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KLS)

학교 밖 이주배경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 수강생 모집

수준별 한국어 수업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 향상 및 학습 자신감 향상!
학교 밖 이주배경학생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합니다!

· 수업 안내

- 수업 대상: 용인시 거주 학교 밖 이주배경학생
- 수업 기간: 2026. 8. 25. (화)~2026. 12. 31.(목)
※ 강의 일정 및 시간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업 일정: 매주 화, 목요일 16:00~18:00 (총 37회기)
- 수업 장소: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 신청 방법: 센터 방문 접수
- 문의 전화: 031-337-3057

YISC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운영시간 화~일요일 / 09:00~18:00
매주 월요일, 공휴일 휴관 / 점심시간 12:00~13:00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김용국)는 지난 9월 20일 '2026년 한마음으로 즐기는 가을축제'와 함께 '제3회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 대회에는 8개국 8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본선에 진출해 '우리들의 한국'과 '우리들의 회사'를 주제로 한국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겪은 경험과 생각을 한국어로 발표했다.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어 학습을 통해 일상과 직장 내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직접 한국어로 표현하고 지역사회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단순히 한국어 실력을 겨루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며 느낀 어려움과 기쁨, 직장 동료와의 관계, 앞으로의 꿈을 자신의 목소리로 전하는 데 의미

가 있다. 대회 결과 최우수상은 미얀마 출신 진민소 씨가 수상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째인 진민소 씨는 18살부터 한국어를 공부해 스물한 살에 한국에 왔다. 낯선 환경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속에서도 미얀마 선배들과 직장 동료들의 도움으로 한국생활에 적응한 이야기를 전하며 "한국은 저에게 젊음이자 미래입니다"라고 표현했다.

우수상을 받은 네팔 출신 수리아 씨는 자신에게 회사가 단순히 일하는 곳이 아니라 많은 것을 배우고 좋은 사람들을 만난 '두 번째 가족'이라고 소개했다. 장려상을 받은 인도네시아 출신 리아디 씨는 2018년 한국에 온 이후 한 회사에서 꾸준히 근무해 온 경험을 전하며, 직장생활을 통해 책임감과 성실함,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배웠다고 말했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올해로 세 번째지만 무대에 오르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야기는 매년 달랐다. 제1회 필리핀, 제2회 네팔에 이어 올해 제3회에서는 미얀마 출신 근로자가 최우수

상을 수상했으며, 서로 다른 국적과 배경을 가진 참가자들이 한국어라는 공통의 언어를 통해 자신의 삶과 경험을 지역사회에 전했다.

3회 대회에 접어들자 한국어 말하기 대회의 의미도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국어는 단순한 학습의 대상이 아니라 직장에서 동료와 소통하고 한국생활에 적응하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말하기대회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국어 학습의 동기과 자신감을 높이는 기회가 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직접 듣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어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표현하고 지역사회와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는 기자

죽전도서관, 책과 음악 함께 즐기는 '게릴라 버스킹'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죽전도서관은 10월 10일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2026년 경기도 독서문화진흥 게릴라 버스킹' 공연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서관이 주최하고 희망동지협동조합이 주관하는 '게릴라 버스킹'은 지역 도서관을 찾아가 음악 공연과 독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이다. 공연은 10월 10일 오후 4시부터 죽전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사전 신청을 받은 관객 8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날 밴드 '실버워터'와 '토브뮤직'이 무대에 올라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 김광진 '편지',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등 대중에게 친숙한 가요와 감미로운 연주곡을 라이브로 선보이며 가을날의 특별한 음악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장에는 관람객들이 책과 공연을 함께 즐기며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대형 전시 구조물과 주제별 도서를 비치한 책 전시장, 행사 안내판 등도 설치한다.

참가 신청은 9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죽전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받는다.

도서관 관계자는 "책과 음악이 어우러진 이번 공연을 통해 시민들이 도서관에서 독서와 문화를 함께 즐기는 특별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서관이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소통하는 생활 속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흥도서관은 지난 9월 18일 도서관 앞마당과 시청각실에서 야외 체험 행사 '북(Book)적북적'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독서의 달을 맞아 시민들이 도서관 안팎에서 책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 등 시민 5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즐겼다.

다문화가족도 이번 가을에는 자녀와 함께 꼭 지역의 도서관을 방문해보자. 이지는 기자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구리시, 주거비 줄이고 저출산 극복 위해 제도 확대



구리시(시장 신동화)는 지역 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2026년 4차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금융권의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최장 7년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가구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차 주택 주소지가 모두 구리시에 있고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이며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이고 ▲금융권의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이 2억 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다문화가족도 이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촌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저금리 대출(버팀목 대출 등)을 이용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 급여 수급자, 그 밖의 유사 사업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0월 1일부터 16일까지다. 구리시청 누리집 공고 게시판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구비 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된 가구에는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031-550-2395

이지은 기자

‘평생학습 매니저양성과정’ 수강생 모집해요

구리시 평생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문화를 이끌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2026년 평생학습매니저 양성과정’의 수강생을 9월 28일부터 10월 7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평생교육 관계자와 예비 관계자의 역량을 한층 높이고, 구리시 곳곳에서 학습 공동체의 활성화를 이끌 현장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문화가족도 도전해 보면 어떨까?

교육은 10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총 10

차례에 걸쳐 수택평생학습센터에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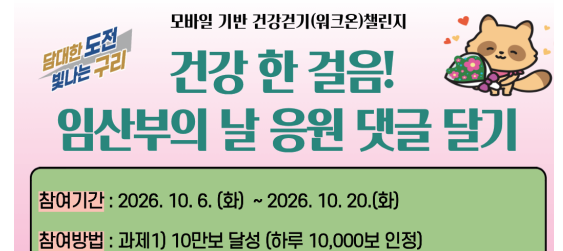
신동화 구리시장은 “평생학습매니저는 구리시의 평생학습 문화를 현장에서 이끌어 가는 핵심 인력”이라며 “이번 역량 강화 과정을 통해 배출된 전문 인력들이 지역사회의 학습 환경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데 힘을 보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청 대상은 구리시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성인 남녀와 구리시 내 평생교육 관계자다. 신청은 구리시 평생학습 누리집(<https://guri.gseek.kr/>)을 통해 할 수 있다. 031-550-2186

이지은 기자

구리시, 10월 워크온걷기 도전

‘임산부의 날 응원 댓글 달기’



구리시(시장 신동화)는 10월 10일 제21회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신과 출산의 가치를 되새기고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건강한 걸음! 임산부의 날 응원 댓글 달기’ 걷기 도전을 10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걷기를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동시에 임신과 출산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임산부에게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여하려면 ▲휴대전화 응용 프로그램(앱) ‘워크온’ 설치 ▲구리시 공식 걷기 모임 ‘즐거운 걷기, 더 행복한 건강생활’ 가입 ▲행사 기간 10만보 걷기(하루 1만 보 인정) ▲구리시 공식 인터넷 동아리(커뮤니티) 게시판에 임산부의 날 응원 댓글 작성 후 인증 화면 게시의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구리 시민이면 다문화가족을 비롯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모든 과제를 완료한 참가자 가운데 2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음료 교환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걷기 도전은 시민들이 걷기 활동에 참여하면서 임산부에게 직접 응원 글을 전하도록 해 임산부를 배려하고 응원하는 따뜻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임산부의 날을 맞아 시민들이 건강한 걷기를 실천하면서 임산부에게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고 즐겁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 증진 사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031-550-8612

이지은 기자

구리시,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별 순차 실시

구리시(시장 신동화)는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독감)와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해 9월 21일부터 관내 위탁의료기관 106개소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9월 21일부터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1회·2회 접종 대상자 모두 포함)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동시에 시작된다.

특히 이번 절기는 예년보다 이른 시기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이 확산함에 따라 감염 취약계층의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해 접종 일정을 앞당겨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고위험군인 75세 이상 어르신은 예년보다 이른 10월 6일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이어 ▲70~74세는 10월 12일부터 ▲65~69세는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의 경우 ▲70세 이상은 10월 12일부터 ▲65세 이상은 10월 15일부터 인플루엔자 백신과 함께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

아울러 구리시는 주민등록상 구리 시민인 15~64세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1~3급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10월 6일부터 구리시보건소

(인창동)에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심한 장애인의 경우 이동편의를 높이고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위탁의료기관 4개소에서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접종 희망자는 자격 증빙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다문화가족도 기준에 해당하면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전국 및 관내 위탁의료기관 현황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구리시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31-550-8645, 8667)

이지은 기자

외국인 유학생, 한국에서 공부 취업 어떻게 하고 있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 유학생 체류·정주 현황 데이터 기반 분석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취업할 때 유리한 전공은 분자·나노공학(219명, 84%)과 조선·해양공학(223명, 80%), 신소재 재료공학(352명, 79%), 화학공학(573명, 77%) 등 일부 공학·제약 계열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가 많은 경영·마케팅(27%, 4,578명 취업), 미디어(35%, 996명), 호텔 관광(20%, 951명), 국제학(34%, 954명), 외국어·외국문학(26%, 610명) 전공은 이공계열에 비해 취업자 수는 많았으나 취업률은 저조했다. 이 통계는 졸업 후 출국한 유학생은 제외하고 산정한 것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재학·졸업·취업·정주’ 전 과정을 분석한 「외국인 유학생 체류·정주 현황」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국내 대학에 입학·졸업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의 어느 지역, 어떤 전공에서 늘어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유학생이 학업을 마친 후 국내에서 취업과 정주로 이어

지는지” 등을 데이터에 기반하여 파악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 동안 국내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53만 명의 출신 국가, 국내 거주지, 전공, 학업 성적 등을 분석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15만 명이 졸업 후 국내에서 어떻게 정착하는지를 분석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데이터에 기반한 통계 분석을 통해 유학생정책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이민정책 수립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발표 내용을자세히 살펴보면 졸업 후 한국을 떠난 유학생 비율은 박사 81.3% > 학사 71.8% > 석사 71.3% > 전문학사 26.4% 순으로 나타났으며, 취업 및 거주·영주 비자로의 전환은 전문학사가 55.1%로 가장 높았다.

유학생이 졸업 후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전환한 경우 이 중 32%(3,701명)가 국내 정착(거주(F-2) 또는 영주(F-5) 자격을 취득)했으며, 졸업 후

연구(E-3) 자격으로 전환한 유학생의 50%(2,145명)는 한국을 떠나 출국 비율이 높았다.

졸업 후 출국한 유학생을 제외한 졸업자의 취업률은 34.3%로 나타났으며, 국적별 취업률은 인도 > 파키스탄 > 인도네시아 순으로 높았다. 하지만 이 통계는 졸업 후 국내 취업을 원했으나 여의치 않아 출국한 유학생의 상황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24년 기준 내국인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69.5%였다.

국적별 취업자 수는 베트남(6,495명) > 중국(4,597명) > 우즈베키스탄(1,263명) 순으로 많았다. 한 가지 재미있는 통계는 성적이 우수한 유학생 국가가 발표된 것이다. 졸업 성적이 B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은 유학생 4개 국가는 독일(83%)·인도네시아(82%)·프랑스(79%)·네팔(75%)이었다. 일본(69%)·미얀마(68%)·미국(68%) 출신 유학생도 성적이 좋았다. <중국어 16면, 태국어 6면, 영어 6면> 파파야스토리

Stay Duration Extended for Family Members of Marriage Migrants

Who Care for Children 자녀 돌보는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의 체류기간 연장한다

Currently, many parents of marriage migrants are living in Korea to care for the young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However, these grandparents must leave Korea once the child turns 11, as the age limit for childcare support is currently set at 10 or younger. Many multicultural families face significant difficulties because the need for care does not simply vanish when a child turns 11. Fortunately, this age limit is expected to be raised to 12.

On September 18, the Ministry of Justice convened the "Working-Level Subcommittee on Supporting the Growth of Second-Generation Immigrants"—involving eight government bod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the Overseas Koreans Agency—to discuss measures for the stable settlement of marriage immigrants and to establish a definition and a tailored support system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migrant backgrounds.

As the first agenda item, discussions were held on raising the age limit for child-rearing

support—currently set at 10 or younger—to 12 or younger, in order to facilitate the extension of the domestic stay for the family members of marriage immigrants. Additionally, measures were discussed to extend the maximum seven-year stay limit for these family members, aiming to substantially alleviate the child-rearing burden on multicultural families.

In particular, the system allowing marriage migrants to invite family members from their home countries for childcare purposes is expected to be revised to provide more humanitarian support.

As the second agenda item, the committee reviewed the definition of and support measur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migrant backgrounds, based on discussions from the first working-level subcommittee meeting held on July 15. The number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migrant backgrounds is projected to rise by 51.7%, increasing from 187,000 in 2021 to 284,000 in 2025.

In response to the rising number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a migrant background,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plans to amend the *Framework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to establish a legal definition for "persons with a migrant background" and create a legal basis for providing residency support and conducting surveys on their living conditions. Lee Jin-soo, Acting Minister of Justice, emphasized, "We will work closely with relevant ministries to rapidly implement policies that enable families of marriage-based immigrants to raise their children with peace of mind in Korea and allow second-generation immigrants to grow into healthy members of Korean society."

PapayaStory



QR코드 스캔 후
파파야스토리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국기를 선택해 언어를
변경하세요.



광주시와 베트남 광닌시 간 우호 교류를 위해 광주시를 방문한 광닌시 대표단이 지난 9월 19일 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수희)를 방문했다.

광주시와 광닌시 간 공식 교류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방문에서 대표단은 광주시가족센터의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가족지원 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 현황을 살펴봤다. 특히 이날 센터에서는 부모 나라의 언어를 배우며 이중언어 역량을 키우고 있는 이중언어교육지원 베트남어반 아동들이 광닌시 대표단을 직접 환영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

광주시가족센터는 이번 만남을 통해 이중언어교육지원 사업의 취지를 소개하고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부모 나라와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함께 이해하고

자신의 정체성과 강점을 긍정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광닌시 대표단은 이중언어교육지원 베트남어반 아이들을 위해 학용품 세트 로 구성된 선물꾸러미를 전달했다. 아이들은 이번 만남을 통해 부모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소중한 경험을 갖게 됐다.

이수희 센터장은 “이번 광닌시 대표단의 방문을 통해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베트남어가 부모 나라와 연결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소중한 자산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를 자신의 강점으로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접수 월 최대 15만원 지역화폐 지원

광주시는 9월 28일부터 10월 23일까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촌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에 따라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원, 청년·귀농·환경 농어민에게는 월 15만 원을 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50세 미만 청년 농어민(만 40~49세는 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귀농어민(만 65세 이하, 귀농 5년 이내), 환경 농어민(친환경·동물복지·가족행복·명품수산물 인증)과 일반 농어민이다. 신청 자격은 농외소득이 3천7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신청 시작일(9월 28일) 기준 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지역 내 농지에서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다문화가족 농가도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어민은 주소지 읍면 및 오포1동 행정복지센터, 동 지역은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관열 시장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농어민 기회소득이 농어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外国留学生在韩国如何学习、就业？ 出入境・外国人政策本部分析外国留学生居留・定居现状

数据显示，外国留学生在韩国就业时，优势专业主要是分子・纳米工程（219人，84%）、造船・海洋工程（223人，80%）、新材料材料工程（352人，79%）、化学工程（573人，77%）等部分工学和制药类专业。毕业生人数较多的经营・营销（27%，4578人就业）、媒体（35%，996人）、酒店旅游（20%，951人）、国际学（34%，954人）、外语・外国文学（26%，610人）专业，虽然就业人数多于理工科，但就业率较低。该统计是在排除毕业后出国的留学生后计算得出的。

法务部出入境・外国人政策本部发布了分析外国留学生&入学一就学一毕业一就业一定居&全过程的《外国留学生居留・定居现状》结果。

此次分析基于数据了解到在国内大学入学、毕业的多国籍外国留学生&在国内哪些地区、哪些专业中不断增加&，以及&有多少留学生在完成学业后继续在国内就业并定居&等情况。为此，分析了2019年至2025年7年间在国内入学的53万名外国留学生的原籍国、国内居住地、专业、学业成绩等

信息，并分析了同期在国内大学毕业的15万名外国留学生毕业后在国内的定居情况。

出入境・外国人政策本部表示，将通过基于数据的统计分析进一步完善留学生政策，同时将相关分析结果用于制定促进地区经济发展的移民政策。仔细查看发布内容，毕业后离开韩国的留学生比例依次为博士81.3% > 学士71.8% > 硕士71.3% > 专科26.4%，其中转为就业签证及居住、永久居留签证的比例专科最高，为55.1%。

留学生毕业后转换为特定活动（E-7）资格者中，有32%（3,701人）在国内定居（取得居留（F-2）或永久居留（F-5）资格），而毕业后转换为研究（E-3）资格的留学生中，有50%（2,145人）离开韩国出境的比例较高。除毕业后出国的留学生外，毕业生的就业率为34.3%，按国籍划分，就业率依次为印度 > 巴基斯坦 > 印度尼西亚。不过，这一统计似乎未能反映那些毕业后希望在国内就业但因条件不济而出国的留学生的情况...〈중략, 한글 기사 15면〉 파파야스토리

다문화자녀 성장지원사업

사회성발달 프로그램

어쩌다 리더

- 놀다보니 리더가 되는 우리 -

2026.10.24(토)-10.25(일)

오전 10시 - 다음날 오후 3시 | 안성리굴문화마을 (전세버스 이동)

프로그램

- 네트 플레이
- 예술관의 만남(금속공방)
- 단체 레크레이션
- 포토미션

참가 안내

- 대상 | 초등 3학년~초등 6학년(25명)
- 참가비 | 무료
- 신청 | 홈페이지 프로그램신청
- 문의 | 070-4706-3627

광주시가족센터

광주시
GWANGJU CITY

아빠-자녀관계증진프로그램

아빠와 함께
캠핑 간 DAY

활동내용

아빠와 함께하는 텐트 설치, 요리 대회, 기상 미션

일 자

10월 24일(토)~10월 25일(일) / 1박 2일

참여대상

관내 **아빠-초등 고학년 자녀(2016년생~2014년생)** 1인으로 구성된 10가족

1순위

신규 참여 가족
(2026년 아빠-자녀관계증진프로그램 미참여)

2순위

기존 참여 가족

3순위

선착순

우선 순위 기준으로 선정하되, 같은 순위에서는 선착순으로 참여가 확정됩니다.

신청기간

9월 18일(금) 14시~10월 7일(수)
2026.10.8.(목), 순차적으로 참여 확정 연락 예정입니다.

장 소

경기도청소년야영장(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 1243)
• 버스 탑승 후 단체 이동
• 당일 13시까지 추후 공지하는 장소로 집결

신청방법

참여하는 **아빠와 자녀**를 신청란에 기재해 주셔야 **정상 접수** 됩니다.

센터 홈페이지 접속

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 홍보

아빠와 함께 캠핑 간 DAY

“참여하지 못하는 자녀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른 날 아빠와 단둘이 데이트를 즐겨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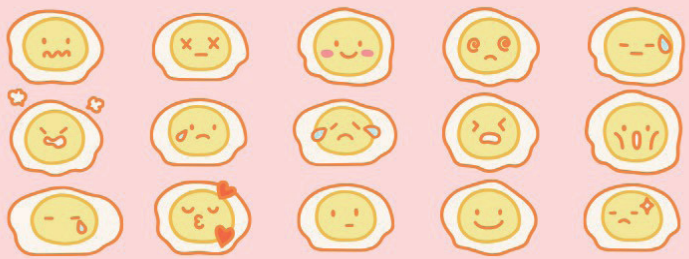
[필수사항] 프로그램 참여 확정 후 취소 및 당일 불참 시, 추후 센터 프로그램 참여에 제한이 있습니다. 참여자는 우선 순위에 의해 확정되며, 확정 이후 아빠와 자녀는 필수로 회원가입 해주셔야 합니다. 다수의 참여자가 신청하면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며, 참여 확정 연락을 받지 않을 시 신청이 취소됩니다.
[문의사항]: 070-4706-3622(가족성장팀)

광 주 시 가 족 센 터

우리아이 이해검사

시도 모르는
우리아이 성향 알아보기

"도대체 무슨 생각이지, 내가 잘 하고 있는 건가?!"



일시

2026.10.10(토), 10.17(토) 10시, 11시, 13시, 14시 (각1시간씩, 2회기, 4가정)
2026.10.31(토), 11.7(토) 10시, 11시, 13시, 14시 (각1시간씩, 2회기, 4가정)

대상

다문화가정 자녀 중 자신이 궁금한 아동 및 양육자

장소

광주시가족센터, 6층 상담실3

검사내용

JTCI검사(아동용)

접수기간

2026.9.16.(수) ~ 10.2(금), 홈페이지 프로그램신청

참가비용

전액 무료

문의

070-4706-3627

광 주 시 가 족 센 터

경기도

· 내외국인 문화소통 프로그램 ·

광주시
GWANGJU CITY

MAKE,
TALK,
TOGETHER

달콤한 전통 디저트 만들기

일 시

2026년 10월 15일/22일 목요일 19시~21시

대 상

광주시 거주 성인 10명 (한국인 5명 + 외국인 5명)
※ 한국어로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분

내 용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참여자가 함께 소통하며 달콤한 전통 디저트 만들기
※1회기, 2회기 모두 참여하여야 합니다.

장 소

광주시가족센터 강의실(광주시 중앙로 199, 6층)

신청기간

2026년 9월 22일 화요일부터 2026년 10월 8일까지
※선착순 모집으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네이버 폼 신청하기

»

대상 기준 확인 대기

»

참여자 확정

»

홈페이지 신청

※참여 대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여비용

무료

문 의

070-4706-3743

광 주 시 가 족 센 터

경기도

· 내외국인 문화소통 프로그램 ·

광주시
GWANGJU CITY

MAKE,
TALK,
TOGETHER

귀여운 디저트 캔들 만들기

일 시

2026년 10월 17일 토요일 10시~12시

대 상

광주시 거주 12세~16세 아동 10명 (비다문화 5명 + 다문화-외국인 5명)
※한국어로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아동

내 용

함께 소통하며 귀여운 디저트 캔들 만들기

장 소

광주시가족센터 강의실(광주시 중앙로 199, 6층)

신청기간

2026년 9월 22일 화요일부터 2026년 10월 8일까지
※선착순 모집으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네이버 폼 신청하기

»

대상 기준 확인 대기

»

참여자 확정

»

홈페이지 신청

※참여 대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여비용

무료

문 의

070-4706-3743

광 주 시 가 족 센 터



不分国籍，同胞同标
韩法务部“同胞整合政策”
2026年2月12日正式启航

1 合二为一：原两种韩裔外籍同胞滞留资格合并为在外同胞(F-4)

1 不论国籍，均采用统一标准

- 滞留期限最长为3年，具体视韩语能力及社会整合项目参与及修毕情况而定
- 凡有杀人、强奸、涉毒、电信诈骗等犯罪记录者，不得取得在外同胞(F-4)资格

2 均可变更为在外同胞(F-4)滞留资格

- 现持有访问就业(H-2)资格人员，可通过提交“综合申请表”转换为在外同胞(F-4)滞留资格
- ※ 根据审核情况，可能要求申请人补充材料
- ※ 支持HI KOREA网上办理
www.hikorea.go.kr

温馨提示 | 不再发放访问就业(H-2)签证，原持有访问就业(H-2)资格者，可在其滞留期限内继续在韩滞留

2 放开限制：扩大在外同胞(F-4)就业范围

放开原先限制在外同胞(F-4)资格持有人从事的10种职业

10种职业 放开限制	建筑业普通工	采矿业普通工	装卸搬运工	其他装卸搬运人员	手工包装工
	手工贴标工	加油员	理货员	停车场管理员	自动售货机管理员

3 政策优惠：对韩语能力优秀者及优秀志愿者给予政策优惠

- 韩语能力优秀者及优秀志愿者申请永居(F-5)资格时，收入标准*可予以放宽
- * 韩语能力优秀者(社会整合项目第5阶段修完者)：上年度人均国民总收入(GNI)的70%以上
- 过去6个月内，志愿服务时长累计满100小时者：上年度人均国民总收入(GNI)的80%以上

政策咨询

韩国法务部外国人综合咨询中心
(拨打1345, 无需加区号, 有中文服务)

HI KOREA官网
www.hikorea.go.kr

同胞滞留支援中心
(由法务部指定, 全国23所)

전통문화 향유 기회 제공해

광주시립광지원농악단, ‘한가위 국악한마당’



광주시는 지난 9월 25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50분까지 청석공원에서 광주시립광지원농악단의 ‘2026 한가위 국악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한가위를 맞아 시민들과 우리 전통예술의 흥과 맛을 나누고 고향을 찾은 귀성객에게는 고향의 정취와 명절의 추억을, 고향을 찾지 못한 시민에게는 전통예술과 함께하는 명절의 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은 광주시청년연희단의 무대를 시작으로 경기민요, 고깔소고춤, 광주 시립광지원농악단 공연 등 약 80분간 진행됐다. 특히, 경기민요 4곡과 흥겨운 고깔소고춤에 이어 광주시립광지원

농악단이 광지원농악 특유의 역동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공연 마지막에는 관객과 출연진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동놀이가 마련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전통예술의 흥을 나눌 수 있도록 구성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한가위를 맞아 고향을 찾아오신 분들과 여러 사정으로 고향에 가지 못한 분들 모두가 한자리에서 명절의 정과 흥을 나눌 수 있도록 이번 공연을 마련했다”며 “가족, 이웃과 함께 청석공원을 찾아 농악과 민요, 무용이 어우러진 공연을 즐기며 풍성한 한가위의 정취를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전통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광주시립광지원농악단이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 예술단체로서 시민과 가까이 소통할 수 있도록 공연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문화가족들도 지역사회의 한국 전통공연에 참여하면 좋겠다. 이지은 기자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с 12 февраля 2026 года (чт) вводит единые критерии для всех стран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политики “Интеграци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1 Разрозненные категории статуса пребывания для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будут объединены в единый статус - “статус для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F-4)”

1 Ко всем странам будут применяться единые критерии.

-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уровня владения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а также факта регистрации и прохождения программы соци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статус пребывания будет предоставляться на срок до 3-х лет с возможными различиями по сроку.
- Лица, имеющие судимость за убийство, изнасилование, наркотики, а также за мошенничество, не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статус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 (F-4).

2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статуса пребывания F-4

- Лица,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имеющие статус пребывания H-2, смогут изменить его на статус F-4 посредством подачи “интегрированного заявления”.
- ※ В процессе рассмотрения могут потребоватьс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документы.
- ※ Подача заявления возможна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иде через систему HiKorea www.hikorea.go.kr

Информация | Прекращена выдача новых виз “визит с правом на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H-2”, при этом лицам, уже имеющим данный статус, разрешено пребывание в стране до максимально разрешённого срока.

2 Расширение сфер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для лиц, имеющих статус F-4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ся расширение сфер труд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для действующих обладателей статуса F-4.

Допущено расширение сфер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Не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й рабочий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не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й рабочий в горнодобывающ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рабочий по погрузке и разгрузке	прочие рабочие по погрузочно-разгрузочным работам	рабочий по ручной упаковке
10 видов профессий	рабочий по ручному наклеиванию этикеток	оператор автозаправочной станции(заправщик)	работник по поддержанию порядка в торговом помещении	работник парковки	обслуживающий персонал торговых автоматов

3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льгот лицам с высоким уровнем владения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и занимающимся волонтер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 В отношении лиц, обладающих высоким уровнем владения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а также лиц с выдающимися показателями в сфере волонтер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и подаче заявления на получение статуса постоянного вида на жительства (F-5) применяется пониженный критерий дохода*
- * Для лиц, успешно завершивших 5-й уровень программы соци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с высоким владением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устанавливается требование к доходу в размере не менее 70% валов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дохода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ВНД) за предыдущий год.
- Для лиц, имеющих подтвержденный опыт волонтер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объеме не менее 100 часов за последние 6 месяцев, устанавливается требование к доходу в размере не менее 80% валов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дохода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ВНД) за предыдущий год.

Справочная информация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центр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1345 без кода города,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услуга устного перевода)

Официальный сайт HI KOREA
www.hikorea.go.kr

Центры поддержки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назначенный Министерством Юстиции (23 центра по всей стране)

잠자는 장바구니, 전통시장에!

광주시,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활동 진행



광주시는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인 장바구니와 친환경 가방을 수거해 전통시장 이용객에게 다시 나누는 ‘잠자는 장바구니를 전통시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탄소중립 시민추진단 그린리더와 함께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활동을 실천하고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여 탄소중립 생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지난 15일부터 태전동 아이파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장바구니와 친환경 가방을 수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동주택 4곳에서 300여 개를 수거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장바구니를 지속

적으로 추가 수거해 오는 10월 경안시장에 기증할 예정이다. 수거 대상은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장바구니와 친환경 가방이며 오염이나 훼손 등으로 재사용이 어려운 물품은 제외한다.

수거 활동은 탄소중립 시민추진단 그린리더가 맡으며 참여자에게는 장바구니 또는 친환경 가방 1개를 반납할 때마다 201 종량제봉투 1매를 제공한다. 다문화가족도 지역행사에 참여해 보자.

광주시는 현재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수거 활동을 마을회관, 학교, 종교시설 등으로 확대해 시민 참여 기반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잠자고 있는 장바구니가 전통시장에서 다시 쓰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자원순환과 탄소중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 참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클래식 음악과 함께하는 인문학 여행

양평군가족센터, 결혼이민자도 음악으로 소통하며 참여

양평군가족센터(센터장 박우영)는 지난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결혼이민자 및 한국어교육 수강생을 대상으로 「클래식 음악과 함께하는 인문학 여행」을 총 3회에 걸쳐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아신대학교와 연계한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지역 결혼이민자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매개로 인문학과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음악 감상과 한국어 대화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과 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시간에는 ‘클래식, 한국어로 만나다’를 주제로 소규모 클래식 공연을 감상하고 음악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한국어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음악으로 나누는 마음의 언어’를 주제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모국의 클래식 및 전통 음악을 소개하고, 음악에 담긴 정서와 고향의 기억을 한국어로 이야기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마지막 회기에는 ‘함께 듣는 우리의 노래’를 주제로 한국 노래와 민요, 모국의 음악을 함께 감상하고, ‘내가 만난 한국 음악’을 주제로 짧은 발표와

대화로 음악을 통한 문화적 공감대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클래식 음악과 함께하는 인문학 여행」은 행복플러스센터 2층과 양평 지역의 로컬 공간에서 진행됐다. 단순한 음악 감상을 넘어 참여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한국어로 표현하고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며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문화적 공감대를 높일 수 있었다.

박우영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클래식 음악을 어렵게 느끼지 않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며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음악이라는 공통의 언어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과정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매개로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평군가족센터는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가족 단위의 통합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평화로운 지역사회 양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전진선 군수, 용문면민과 함께 ‘민선9기 정책설명회’ 개최해



양평군 용문면은 지난 21일 용문다목적청사 3층 대강당에서 전진선 양평군수, 홍명기 용문면장, 용문면 주요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문면민과 함께하는 민선9기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민선9기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을 면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인구 2만 용문읍 승격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설명회에서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매력양평’을 군정 표어로 제시하고, △강하 나들목(IC)을 포함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추진 △양평군립병원 설립 △추모문화공원 설치 △양동일반산업단지 조성 △남한강 환경교육선 운행 △글로벌 교육·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화 교류센터 추진 등 민선9기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용문산 사격장 부지 경마테마공원 유치 △마을상수도 군관리 계획 등 경제·생활 분야 정책과 △세미원 국가정원 추진 △양평예술회관 건립 등 농업·관광 분야 사업, △아이 키우기 좋은 양평 조성 △청년 지원 확대 △중장년 및 어르신 복지 강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도 함께 설명했다.

특히 용문면과 관련된 주요 사업으로는 △출퇴근 시간대 급행전철 신설 및 용문역 케이티엑스(KTX) 정차 △용문성당산 다문근린공원 2단계 추진 △용문다목적청사~마룡리 도로 정비 △다목적체육관 및 배드민턴장 건립 △패밀리형 파크골프장 조성 △용문산 주변 9개 리 지방상수도 보급 △용문 특성화 축제 추진 및 관광시설 활성화 등이 소개됐다. 이를 통해 교통·문화·관광 등 분야별 주요 사업과 함께 인구 2만 용문읍 승격을 위한 용문면의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민선9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용문면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더욱 살기 좋은 매력양평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지난 14일 양서면(면장 박용순) 양서면사무소 3층 대강당에서도 ‘민선9기 정책설명회 및 2026 제1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양서면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다문화가족도 이러한 지역행사에 잘 참여해보자.

이지은 기자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난 9월 12일 하남시 히든백야드에서 온가족보듬사업 교육·문화 및 자조모임 '마음이음' 가족캠핑을 진행했다.

17명이 참여한 이번 프로그램에서 참여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고기를 구우며 가족 간 협력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한강라면 체험과 자유로운 대화, 휴식 등을 통해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었다.

자녀들은 공놀이, 모래놀이, 술래잡기 등 다양한 놀이 활동에 참여하며 또래 및 다른 연령대의 자녀들과 관계를 형성했다. 특히 모든 참가자들이 식사

준비와 자녀 돌봄, 주변 정리 등 캠핑 활동 전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가족캠핑은 한부모가족이 일상에서 벗어나 여가를 즐기고, 다른 가족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함께 식사하고 놀이하는 과정을 통해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하남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가족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교육·문화 및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지는 기자

이사 후 카드·통신사 주소 변경? '주소일괄정정' 신청하면 안돼요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온라인 전입신고를 마친 이주민과 시민들에게 정부24의 '주소일괄정정' 민원을 잘못 신청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카드나 통신사 주소를 한 번에 바꾸려다 불필요한 헛수고를 겪는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새집으로 이사를 마친 뒤 전입신고를 끝내고 나면 은행이나 카드사, 통신사 등에 등록된 집 주소도 일일이 바뀌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이 과정에서 정부24 화면에 뜨는 '주소일괄정정'이라는 이름을 보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내 연락처와 우편물 주소를 한 방에 새 주소로 묶어서 바뀌주는 서비스로 착각해 신청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정부24의 '주소일괄정정'은 개인이 이사를 했을 때 신청하는 서비스가 아니다.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가 부여·변경되어 도로명주소 자체에 변동이 생겼을 때 이용하는 제도다. 관공서의 공적 장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제도인 만큼 민간 기업인 카드사나 통신사, 은행 전산망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아 기존 기관에 등록된 주소는 바뀌지 않는다. 이사 후 통신사나 카드사 주소를 바꾸거나 우편물을 새집으로 받으려면 목적에 맞는 전용 창구를 찾아가야 한다. 통신사 및 제휴 카드·보험사 등에 등록된 주소는 민간 무료 통합 서비스인 'KT 무빙(주소연락처 일괄변경)'을 이용해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다. 이지는 기자

하남시가족센터, 베트남 수채화와 민화동아리 작품 전시 '다른 문화, 하나의 공간'



하남시가족센터는 다목적가족소통교류공간 전시의 일환으로 하남시가족어울림센터 3층과 4층에서 베트남 수채화 작품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제작한 민화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기존에 전시되었던 베트남 수채화 작품을 새로운 기법으로 제작한 작품으로 교체하는 한편, 하남시가족센터 다문화민화동아리 참여자들이 함께 제작한 민화 작품을 새롭게 선보이며 전시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베트남의 풍경과 문화를 담아낸

수채화 작품과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민자들이 함께 그린 한국 전통 민화 '까치호랑이'를 함께 선보인다. 베트남의 문화를 담은 작품과 결혼이민자들이 직접 표현한 한국의 전통문화가 한 공간에서 어우러지며, 방문객들에게 서로 다른 문화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민화동아리 참여자들이 함께 제작한 '까치호랑이'는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직접 배우고 표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여자들은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경험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공유하며 다문화가족이 문화의 수혜자를 넘어 직접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로 참여했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번 전시는 가족어울림센터를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이 일상적인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별도의 전시장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센터를 방문하고 공간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베트남의 문화와 풍경, 한국의 전통 민

화를 함께 만나며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넓힐 수 있다.

하남시가족센터는 작품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며 가족어울림센터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문병용 센터장은 "베트남 수채화 작품과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민자들이 함께 그린 한국 전통 민화가 한 공간에서 만나는 이번 전시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가족어울림센터를 찾는 주민들이 작품을 감상하며 새로운 문화를 발견하고, 일상 속에서 예술을 즐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남시가족센터는 다목적가족소통교류공간을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어울림센터를 누구나 편안하게 방문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지는 기자

“다양한 미술활동으로 자신감 키우고, 그림으로 마음 나눴요”

하남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들과 함께한 ‘드로잉동아리’...어려운 만큼 성장한 실력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와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해 ‘다문화 드로잉동아리’를 성황리에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드로잉동아리는 참여자들이 정기적인 미술 활동을 통해 다양한 표현기법과 재료를 경험하고,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참여자들은 연필드로잉을 시작으로 민화, 어반스케치, 수채화, 아크릴화,

자개를 활용한 작품 등 다양한 미술 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지난해 연필드로잉 중심의 활동에서 나아가 다양한 재료와 표현기법을 경험하면서 참여자들의 미술 활동 범위가 확대됐다. 초기에는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어렵다거나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있고 강사의 확인을 요청하는 모습이 자주 있었다. 하지만 회기를 거듭하면서 스스로 색을 선택하고 재료를 활용하며 작품을 완성하는 모습이 증가했다.

마지막 회기에는 아크릴화와 자개를 활용해 도자기를 표현하는 작품 활동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각자 분홍·파랑·회색 등 원하는 색으로 도자기를 표현한 후 자개의 모양과 색을 살펴가며 작품을 구성했다.

서로 다른 형태의 자개를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공간감과 구

성 능력을 경험했으며, 참여자별로 서로 다른 작품을 완성하며 개성을 표현했다. 이번 활동은 미술 기술 향상뿐만 아니라 참여자 간 관계 형성에도 의미가 있었다.

참여자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그림을 그리며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형성했으며, 마지막 회기에는 서로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작성하는 롤링페이퍼 활동을 통해 함께한 시간을 돌아보았다.

특히 한국어 표현이 어려운 참여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모국어로 작성을 안내했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났으며 작품을 하나씩 완성하는 과정에서 기쁨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 참여자는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작품을 하나씩 완성할 때마다

다 정말 기뻐다”며 “향후에도 기회가 된다면 계속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완성된 작품들은 마지막 회기에 교실에 전시하여 참여자들이 그동안의 활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작품을 집으로 가져가 자신이 만든 결과와 프로그램에서의 경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했다.

문병용 센터장은 “드로잉동아리는 참여자들이 그림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며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자신의 관심과 역량을 발견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2026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기간 1월 ~ 12월 (연중)

대상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
* 2세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 외국인 가족 자녀, 북한이탈주민 등 지원 가능

내용 언어검사 후 결과에 따라 교육 여부 결정
어휘, 구문, 발음, 대화 및 상호작용 능력 촉진 교육

순서 신청 → 초기면담 → 언어검사 → 언어교육

장소 센터 내 언어발달교실 *가정방문 불가

수업 1:1 개별 수업 / 주 2회 40분 or 주 1회 80분 교육

신청방법 전화 상담 후 홈페이지 신청

신청문의 070-4128-3395 / 3398 가족기능강화팀



유의사항

- 유사 사업 대상자(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다문화 방문교육(자녀생활서비스)과 중복 지원 불가
- 대기 아동이 많은 경우 서비스 제공 지연
(09:00 ~ 14:00 수업 가능한 아동의 경우 대기 없이 서비스 이용 가능)


하남시가족센터
HANAM FAMILY CENTER | 관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하남시가족센터-부모역할지원교육

재직부모를 위한 미디어 습관 ON, 가족소통 UP

교육일자

- 1회 2026.10.24.(토) 10:00~12:00 부모가 참여하는 비대면교육
- 2회 2026.10.31.(토) 10:00~12:00 자녀와 함께하는 대면교육

교육내용

- 1회 우리 아이 미디어 습관 이해하기**
: TCI 검사로 우리 아이의 기질과 미디어 사용 특성을 이해하고, 건강한 미디어 사용을 위한 부모의 역할 알아보기
* 본 회차에서는 자녀의 기질 및 미디어 사용 특성 이해를 위한 자녀 TCI 검사가 진행되며 검사 비용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 2회 우리 가족 미디어 사용 워크북 만들기**
: 부모와 자녀가 함께 미디어 사용 일지를 작성하고, 가족 규칙과 실천 미션을 정해 우리 가족만의 미디어 습관 만들기

교육장소 • 1회 ZOOM 온라인교육
• 2회 하남시가족아울림센터 대회의실

참여자상 8세~13세 초등 자녀를 둔 하남시거주 가정 12가정

접수기간 2026.09.21.(월)~선착순마감

접수방법 하남시가족센터 홈페이지 접수 [QR코드 참고] ★
사이트 신청시 교육에 참여하는 가족구성원 전부 회원가입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교육강사 부모교육 전문강사 '더공감 A랩 권혜연 대표'

교육비용 무료

교육문의 하남시가족센터 가족생활지원팀 070-4128-3342



[신청QR코드]

안내사항

- 본 교육은 2회차 과정으로 2회 모두 참여 가능한 가정을 모집합니다.
- 본 교육은 재직중인 부모를 위한 교육으로 최종 선정시 재직증명자료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부모역할지원교육 신규 참여 가정을 우선으로 선정하며, 최종 선정자에 한해 담당자가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1회차는 부모교육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2회차는 자녀와 함께 하는 가족교육으로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 2회기는 가족교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이트 신청시, 참여하는 가족구성원 모두 사이트에 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하남시가족센터
HANAM FAMILY CENTER | 관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광명시가족센터(센터장 남은정)가 지난 8월 센터 이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가족사업을 시작했다.

광명시가족센터의 새로운 주소는 광명시 도덕공원로 52로 ‘철산4동 생활문화복합센터’ 4~5층에 위치해 있다. 새로운 건물은 지하 2층~지상 6층, 총면적 3천135㎡ 규모로 2층에는 철산4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는 주민자치센터, 4~5층에는 광명시가족센터, 6층에는 동대본부와 체력단련실 등이 들어섰다.

특히 새로운 건물은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 가족센터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이 한 공간에 조성돼 행정과 복지, 문화·가족 지원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다양한 주민 활동이 이뤄

지는 생활문화 공간으로 활용돼 주민 간 소통과 참여를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남은정 센터장은 “센터 이전으로 공간의 활용성과 접근성이 높아졌고 기존보다 상담이나 교육, 가족문화 프로그램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특히, 생활문화복합센터 안에 자리하면서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가족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광명시가족센터가 어려움이 있을 때만 찾아오는 곳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배우고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일상 가까이의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이번 이전을 계기로 더욱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의 건강한 변화를 함께하는 든든한 가족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광명시 생애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정보 한눈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시민들의 생애주기에 맞춘 복지 정보 안내서를 제공한다. 광명시는 생애 전 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복지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한 ‘2026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지원’ 전자책을 개정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전자책은 ▲아동 ▲청소년 ▲대학생·청년 ▲혼인·임신·출산·보육·여성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를 비롯해 ▲건강관리·예방 ▲보건의료 ▲일상생활 돌봄 ▲장기요양 ▲주거복지 등 통합돌봄 분야를 담았다. 또한 ▲1인가구 ▲장애인 ▲경제 ▲법률·금융 등 관심 주제별 복지정보를 수

록했다. 각 사업별로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 문의처 등을 함께 안내해 복지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광명시는 이번 전자책 개정으로 시민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복지제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6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지원’ 전자책은 광명시 누리집(gm.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에게도 유용한 정보 안내서를 꼭 확인해 보자.

이지은 기자

‘자율주행 버스 타고 광명동굴’ 7일부터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철산역과 광명동굴을 오가는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도입된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오는 10월 7일부터 철산역~광명동굴 12.3km 구간을 오가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지엠(GM)’1’운행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15인승 전기버스 1대가 수~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행한다. 월·화요일,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운행은 하루 4회로 오전 10시 철산역을 출발해 광명동굴로 향하는 하행을 시작으로 오전 11시 40분 광명동굴 출발 상행, 오후 2시 하행, 오후 3시 40분 상행 순으로 운행한다. 하행은 25개, 상행은 24개 정류소에 정차한다.

특히 이번 자율주행 셔틀버스 노선은 오리서원, 충현박물관, 기형도문화관, 광명동굴 등 주요 관광지와 7호선 철산역, 고속철도(KTX)광명역을 연결해 관광지 접근성을 보다 높이면서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시민 일상에 접목해 이동 편의를 높이고, 안전하고 혁신적인 교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은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철산역~광명동굴을 잇는 오리로 구간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도로·교통 관련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광명시는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 올해 상반기 도로 통신장비, 도로 정밀지도, 온라인 신호제어기 등 자율주행 지원 핵심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 데이터를 활용한 실제 도로 실증과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진행하며 운행 준비를 마쳤다.

광명시는 이번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경험을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미래 모빌리티와 연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교통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2023년 11월 국토교통부 ‘미래 모빌리티 도시형 사업’ 개발지로 선정돼 로보택시, 로보셔틀, 도심항공교통(UAM) 등 차세대 모빌리티(이동) 서비스와 관련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도 광명시의 첨단 자율주행 버스에 관심을 가져보자.

이지은 기자

Tổ chức Hội nghị Báo cáo hoạt động nhân kỷ niệm 1 năm thành lập Trung tâm Tư vấn dành cho Phụ nữ Di cư tỉnh Gyeonggi, xây dựng hệ thống hỗ trợ chuyên môn

Nhân dịp kỷ niệm 1 năm thành lập Trung tâm Tư vấn dành cho Phụ nữ Di cư tỉnh Gyeonggi, ngày 1 vừa qua, tỉnh Gyeonggi đã tổ chức Hội nghị Báo cáo hoạt động tại Hội đồng tỉnh Gyeonggi nhằm chia sẻ những kết quả đạt được trong thời gian qua và tìm kiếm phương hướng phát triển hệ thống hỗ trợ phụ nữ di cư là nạn nhân của bạo lực.

Theo số liệu thống kê tư vấn do trung tâm công bố, từ tháng 8 năm 2025 đến tháng 6 năm 2026, tổng cộng 712 phụ nữ di cư đã sử dụng dịch vụ tư vấn với 6.101 lượt tư vấn.

Tại các buổi tư vấn, nhiều trường hợp không chỉ liên quan đến nạn nhân của bạo lực như bạo lực gia đình mà còn đồng thời phát sinh các vấn đề về tư cách lưu trú, quốc tịch, gia đình, con cái và đời sống. Qua đó cho thấy tầm quan trọng của việc cung cấp hỗ trợ toàn diện phù hợp với hoàn cảnh của từng cá nhân và tăng cường kết nối, phối hợp giữa các cơ quan liên quan.

Trung tâm Tư vấn dành cho Phụ nữ Di cư tỉnh Gyeonggi cung cấp dịch vụ tư vấn đa ngôn ngữ cho phụ nữ di cư là nạn nhân của bạo lực và gia đình của họ, không phân biệt tư cách lưu trú. Tùy theo tình hình của từng nạn nhân, trung tâm kết nối họ với các cơ quan chuyên môn cần thiết và các nguồn lực trong

cộng đồng địa phương. Đặc biệt, không chỉ người nhập cư theo diện kết hôn mà cả người đã nhập quốc tịch Hàn Quốc, người đang cư trú không có giấy tờ hợp lệ, người xin tị nạn và người được phép cư trú vì lý do nhân đạo, phụ nữ di cư theo Chế độ cấp phép tuyển dụng lao động cùng nhiều phụ nữ di cư có hoàn cảnh lưu trú khác nhau cũng đang sử dụng dịch vụ của trung tâm. Qua đó, trung tâm đóng vai trò phát hiện và hỗ trợ những trường hợp phụ nữ di cư bị bạo lực hoặc xâm hại mà hệ thống hỗ trợ hiện có có thể dễ bỏ sót.

Trong một năm qua, trung tâm cũng đã xây dựng nền tảng nhằm tăng cường công tác tư vấn và hỗ trợ chuyên môn. Trung tâm đã thành lập nhóm hỗ trợ pháp lý gồm 17 người và tiến hành 64 trường hợp tư vấn pháp luật. Đồng thời, trung tâm thành lập nhóm hỗ trợ phiên dịch và biên dịch chuyên môn gồm 33 người, cung cấp tổng cộng 97 lượt hỗ trợ thông phiên dịch, qua đó nâng cao tính chính xác và độ tin cậy của công tác tư vấn.

Ngoài ra, trung tâm đã xây dựng mạng lưới với các cơ quan, tổ chức liên quan đến việc hỗ trợ phụ nữ di cư là nạn nhân của bạo lực, qua đó tăng cường chia sẻ thông tin và hệ thống phối hợp giữa các cơ quan, đồng thời tạo nền tảng cho mạng lưới hợp tác ứng phó,

giúp nhanh chóng kết nối phụ nữ di cư với các cơ quan chuyên môn và nguồn lực cộng đồng trên địa bàn tỉnh Gyeonggi.

Ông Kim Seong-hwan, Trưởng phòng Hỗ trợ Xã hội Di dân tỉnh Gyeonggi, cho biết: “Chúng tôi sẽ tích cực xem xét các biện pháp mở rộng khả năng tiếp cận trên thực tế, như thành lập thêm các điểm tư vấn, nhằm nâng cao khả năng tiếp cận dịch vụ tư vấn cho phụ nữ di cư tại khu vực phía Bắc tỉnh Gyeonggi, đồng thời từng bước xây dựng các điều kiện cần thiết để thực hiện.

Chúng tôi cũng sẽ tăng cường quảng bá về trung tâm tư vấn và hỗ trợ biên – phiên dịch các ngôn ngữ ít người sử dụng, qua đó tiếp tục thu hẹp những khoảng trống trong hỗ trợ được xác định tại thực địa.”

Dựa trên những kết quả đạt được và ý kiến từ thực tế được ghi nhận tại Hội nghị Báo cáo hoạt động nhân kỷ niệm 1 năm thành lập, tỉnh Gyeonggi sẽ tiếp tục hỗ trợ nhằm nâng cao khả năng tiếp cận các dịch vụ hỗ trợ dành cho phụ nữ di cư là nạn nhân của bạo lực, đồng thời giúp Trung tâm Tư vấn dành cho Phụ nữ Di cư tỉnh Gyeonggi trở thành đầu mối hỗ trợ kết nối phụ nữ di cư với các cơ quan chuyên môn trong khu vực. <한글 기사 지난호 1면>

파파야스토리

照顾子女的结婚移民者本国家属的居留期限将延长 자녀 돌보는 가족 체류기간 연장

目前，为了帮助照顾多文化家庭中的年幼子女，许多结婚移民者的父母来到韩国生活。

但等子女11岁时，照顾他的爷爷奶奶就得离开韩国。因为子女抚养支援对象年龄规定为10岁以下。10岁并不意味着不需要照护，11岁也不意味着不需要照护，因此许多多文化家庭正面临巨大困难。不过，这一标准预计将提高到12岁以下。

法务部于9月18日召开了“移民第二代成长支援实务分委员会”，讨论结婚移民者的稳定定居方案，并为移民背景的儿童和青少年建立定义规定及定制化支援体系。此次会议由教育部、性别平等家庭部、海外同胞厅等8个部门参与。首个议题为延长结婚移民者本国家属在韩国的居留期限，讨论将目前10岁以下子女的

养育补助对象年龄扩大至12岁以下。此外，为切实减轻多元文化家庭的养育负担，还讨论了将结婚移民者本国家属的最长停留期限延长为7年的方案。

尤其是，为了照顾子女而邀请结婚移民者本国亲属来韩国的制度，本身也有望朝着进一步加强人道主义支持的方向进行调整。

第二个议题是基于7月15日召开的第一次实务分委员会讨论结果，审查了关于移民背景儿童及青少年的定义规定及支援方案。目前，移民背景儿童和青少年人数从2021年的18.7万人增加到2025年的28.4万人，增长了51.7%。

针对这类移民背景儿童和青少年数量持续增加的趋势，出入境外国人政策本部计划修订《在韩外国人待遇基本法》，新增“具有移民背

景者”的定义，并为移民背景儿童和青少年提供居住支援及开展实态调查等工作提供法律依据。

法务部长代理李镇洙强调：“将与相关部门紧密合作，加快推进相关政策，确保结婚移民家庭能够安心在我国抚养子女，移民第二代能够成长为健康的韩国社会成员。”



QR코드 스캔 후
파파야스토리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국기를 선택해 언
어를 변경하세요.



문의, 시민소통관
02)2680-7994

제7회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감콘서트

2026.

10.24. 토 14:30

광명극장 *평생학습원 옆

시민의 생각이 시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추진되었는지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소통의 장



특별출연
렘블피쉬

신청기간
9.23.(수)~10.11.(일)

신청방법
광명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에서 **공감콘서트** 를 검색하세요.
※ 추첨을 통해 참여자 선정

참여신청
바로가기



〈2026년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사업〉

* 우리家 함께, 행복한 푸드테라피 *



1학기 전통강정 만들기

2학기 꼬치아를 및 피자 만들기

3학기 도시락 만들기

신청기간 2026년 9월 11일(금) ~ 2026년 9월 22일(화)

*신청일: 9월 23일(수) (7월 분자 안내)

1순위) 3회 모두 참석 가능자 2순위) 선착순

일시 2026년 9월 29일(화) ~ 2026년 10월 13일 (화)

매주 화요일 19:00~21:00 / 총 3회

장소 광명시 가족센터 5층 교육장 1 (경기도 광명시 도덕공원로 52)

참가비 무료

참여대상 광명시 거주 다문화 가족 20명

* 초등학교생(8~13세) 자녀를 둔 가정

* 부모 1명 이상 필수 참석

신청방법 센터 홈페이지 신청 (부모, 자녀 모두 신청)

문의사항 070-4725-2721 (이우영 사회복지사)





다양한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광명시  가 함께 합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



서비스내용

광명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외국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통·번역 서비스를 무료 지원 합니다.

지원분야

✓ 개인 및 가족 간 의사소통 통역 지원
✓ 병원, 은행, 경찰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공공기관 이용시 동행 통역 지원 (공증 제외)
✓ 유치원·학교 가정통신문 등 교육 관련 통·번역 지원
✓ 다문화가족, 외국인 가족 정보 제공
◎ 중국어 외 기타 언어 번역 요청시 타 센터 번역 의뢰
가능 (1주일 소요 예정)

이용방법

■ 지원 언어 : 중국어
■ 대상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재외동포
및 광명시 유관기관
■ 이용방법 : 전화 또는 내방 신청
(유관기관의 경우 공문 발송)
* 사전 예약(전화접수)는 필수입니다*
■ 이용시간 : 연중 월~금요일(9:00~17:00)
■ 문 의 : ☎ 02-6265-1366
(직통 : 070-4725-2719 담당자 이화)

광명시가족센터는 중국어 통·번역사가 상주 근무하고 있어 중국어 통·번역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습니다.



为了多样家庭的健康、幸福的生活, 광명시  与您携手同行.



结婚移民者
翻译与口译服务



服务内容

面向居住在光明市的结婚移民、多元文化家庭及外国人家属等,
免费提供日常生活所需的口译和笔译服务。

服务范围

✓ 个人及家庭成员之间沟通时提供口译服务
✓ 在医院、银行、警察局、出入境管理事务所
等公共机构办理业务时, 提供陪同口译服务
(公证除外)
✓ 提供幼儿园、学校家庭通知书等教育相关的
口译和笔译服务
✓ 为多文化家庭及外国人家属提供相关信息
◎ 如需申请中文以外的其他语言翻译服务, 可委托
其他家庭中心提供翻译服务, 预计需要1周左右。

申请方法

■ 支持语言 : 中文
■ 对服务象 : 多文化家庭、外国人、
在外同胞及光明市相关机构
■ 使用方法 : 电话申请或到中心现场申请
(相关机构申请时需发送正式公文)
* 需提前预约 (电话) *
■ 服务时间 : 全年周一至周五
(9:00~17:00)
■ 咨询电话 : ☎ 02-6265-1366
直拨电话 : 070-4725-2719 负责人 李花

光明市家庭中心有中文口译·笔译员常驻工作, 可直接提供中文口译·笔译服务。



어린이 눈높이 다문화 뮤지컬

광명도서관, 17일 ‘몬스터 호텔’ 선보인다



광명시(시장 박승원) 광명도서관이 10월 17일 광명도서관 강당에서 다문화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한 참여형 아동 뮤지컬 <몬스터 호텔>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같이 있는 가치’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뮤지컬 <몬스터 호텔>은 몬스터와 인간 ‘조니’의 우정과 모험을 담은 이야기로,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양방향

공연으로 진행된다. 어린이들이 공연을 보며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다름’과 ‘함께함’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서준희 광명도서관장은 “이번 공연으로 어린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마음을 배우길 바란다”며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9월 30일 오전 10시부터 광명시도서관 누리집(gmlib.gm.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도서관(02-2680-540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송하성 기자

‘자격 취득부터 취·창업 지원’

광명시(시장 박승원) 여성비전센터가 자격 취득과 취·창업에 유용한 실무 역량 교육이 효과를 내고 있다.

광명시 여성비전센터는 2026년 상반기 27개 자격과정을 운영한 결과, 수료생 320명 중 301명이 자격을 취득해 94%의 취득률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국가기술자격 과정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한식조리기능사는 수료생 11명 중 10명이 자격을 취득해 91%의 취득률을 기록했으며,

야간 한식조리기능사는 88%, 양식조리기능사는 75%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 운영한 실전 플로리스트 자격과정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화훼장식기능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교육생 6명이 전원 합격했다. 이 같은 결과는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반복적인 실습 중심으로 교육을 운영한 데 따른 것이다. 다문화가족도 여성비전센터 직업교육에 참여해보자. 송하성 기자

독자여러분께 알립니다

경기다문화뉴스는 경기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의 생활정보 및 정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주민 등 구독을 원하는 다문화가족 혹은 구독을 원치 않는 분 그 밖에 주소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기다문화뉴스로 연락해 주세요.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1번길 5, 3층
- 전화 031-8001-0211 ● 문자 010-2455-9331

신문발간을 위해 애써주시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시, 용인시, 평택시, 광주시, 김포시, 하남시, 광명시, 오산시, 파주시, 구리시, 이천시, 성남시, 과천시, 안산시, 양평군, 연천군

경기다문화뉴스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광명시가족센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공모 선정



광명시가족센터(센터장 남은정)는 기아 주식회사의 후원으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추진하는 ‘다문화 아동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1,000만 원의 후원금을 확보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사업’ 및 ‘이주배경청소년 한국사회적응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역량강화를 위해 ▲부모·자녀 관계 향상 ▲미래설계 ▲사회성 향상 등 다양한 영역을 종합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함께 추진되는 ‘이주배경청소년 한국사회적응지원사업’은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문화체험을 제공해 언어·문화적 적응을 돕고, 중도입국 가족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우리家 함께, 행복한 푸드테라피’는 부모와 자녀가 음식을 매개로 소통·협력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단순한 요리 활동을 넘어 긍정적인 가족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총 3회기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 9월 29일 광명시가족센터에서 열린 첫 회기에는 9가정 21명이 참여해 서로의 장점과 공통점, 차이점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센터는 자녀의 미래설계를 위해 진로적성검사, 직업인과의 만

남, 진로 포트폴리오 작성을 진행하고, 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응을 돕는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현재 언어적응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진행 중이며, 이후 ▲인사동 문화체험 활동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가족은 “아이와 역할을 나눠 함께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참 재미있었다”며 “요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서로의 생각에 귀 기울일 수 있어서 가족간에 더 친근해진 느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남은정 광명시가족센터장은 “기아 주식회사의 소중한 후원금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녀의 성장단계와 가족의 욕구를 반영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사업을 비롯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02-6265-1366 송하성 기자





언어 문화적 역량에 전문 교육 역량 더하다!

이천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이종언어 한국어교육강사 양성..수료생 첫 현장 활동 참여 눈길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오대일)는 지난 9월 20일 오전 여성회관 3층 회의실에서 ‘결혼이민자 취업 교육-이종언어 한국어교육강사 양성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결혼이민자가 가진 모국어와 한국어 능력, 문화적 경험을 전문적인 교육 역량으로 발전시키고,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29명이 수료한 이번 교육은 온라인반과 오프라인반 총 2개 반으로 운영됐다. 온라인반은 8월 9

일부터 9월 20일까지, 오프라인반은 8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 진행됐으며, 각 반별로 총 50시간의 교육과 20시간의 과제 제출을 포함해 전문적인 교육 과정이 진행됐다.

특히 교육생들은 한국어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강사에게 필요한 교수 역량과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익혔다. 과제 수행과 시연강의, 필기시험 등을 통해 교육 내용을 점검하고 실제 강의에 필요한 역량을 체

계적으로 강화했다. 무엇보다 이번 과정은 교육 수료에 그치지 않고 실제 활동으로 연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수료생 중 4명은 지난 9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6 사회적가치페스타」에서 교육 대표 및 전시행사요원으로 활동했다. 수료생들은 행사 방문객을 대상으로 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며,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역량을 선보였다.

이천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주)웰메트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수료생들이 교육을 통해 습득한 전문성을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언어적·문화적 강점을 전문역량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육과 활동을 연계해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와 전문인력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대일 이천시가족센터장은 “이번 과정을 통해 수료생들이 자신이 가진 언어와 문화적 역량에 전문적인 교육 역량을 더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웰메트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수료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주)웰메트 방지현 대표가 참여해 수료생들을 격려했다. 송하성 기자

이천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와 함께 추석맞이 '모듬전' 만들기... '다름을 요리하다'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오대일)는 9월 2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결혼이민자 16명을 대상으로 「다름을 요리하다」 세 번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의 식문화와 명절 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지역사회 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다름을 요리하다」는 서로 다른 문화와 음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소통하기 위해 운영 중이다. 앞서 진행된 프로그램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 음식을 가족과 함께

만들며 서로의 문화를 소개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 번째 시간은 기존 프로그램과 달리 추석 명절을 맞아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음식인 모듬전을 주제로 진행됐다. 결혼이민자들은 동그랑땡, 찢은전, 고치전 등 다양한 전의 종류와 조리방법을 배우고 직접 만들며 한국의 명절 음식문화를 경험했다.

특히 결혼이민자들이 평소 접했던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고 조리과정을 익히면서 한국의 명절문화와 식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또한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게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참여자 간 소통의 기회도 가졌다. 이천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결혼이민자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받는 동시에 한국의 생활문화와 지역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초기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오대일 이천시가족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의 명절과 음식문화를 친숙하게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로 다른 문화가 자연스럽게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이천시가족센터에서는 전문지도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서비스(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모집기간** | 1월~12월 연중수시모집

2 **모집대상** | 결혼이민자 및 만3세~만12세 이하 다문화자녀 (중도입국자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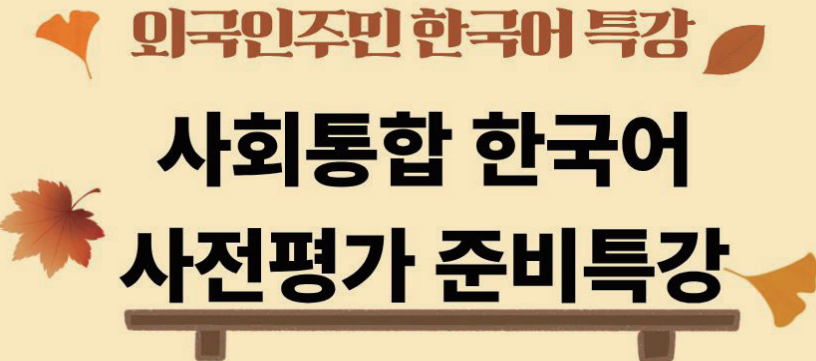
3 **프로그램** |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4 **수업시간** | 대상자와 지도사가 협의 후 주중 주 2회, 2시간(쉬는시간20분포함)수업진행

5 **문의전화** | 031-637-5525

※ 방문교육서비스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과(맞춤형복지팀) 신청
※ 방문교육은 한 가정에 하나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하나의 서비스가 끝난 후 다른 서비스 제공 가능





외국인주민 한국어 특강

사회통합 한국어 사전평가 준비특강

2027년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어 수업에
진입하기 위한 사전 준비 시험 참여자 모집

2026년 11월~12월 시험 대비 문제풀이반

외국인주민 대상 10명

9월21일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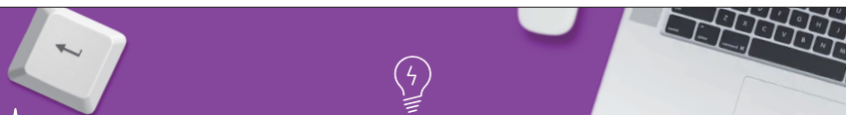
수업기간 : 2026.09.30 ~ 11.19
수업시간 : 매주 수/목 저녁 6:30~9시
수업장소 : 중리동행정복지센터 3층 가람2실
신청방법: 이천시가족센터 홈페이지



로그인>프로그램안내>
프로그램신청>
사전평가준비특강반







결혼이민자 직장인을 위한 소양교육

문서기초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에서는 사무직 근로자, 직장인을 위한 컴퓨터 문서기초과정 특강을 진행합니다



교육기간

2026.10.21 ~ 11.05,
매주 수,목 (18:30~20:30)
총6회기

교육 내용

- 한글문서 기초과정
- 엑셀기초약간

신청기간

2026.10.2(금) 09:00~

신청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후
- 프로그램 신청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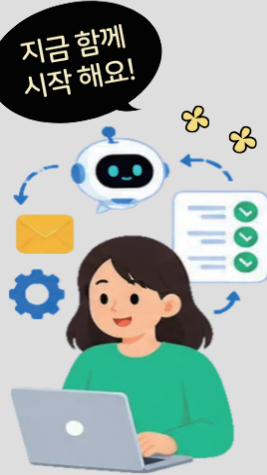
기타문의

통합가족2팀 031-631-2267

“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디지털교육지원 ”

AI활용 주말특강 교육생모집

지금 함께 시작해요!



교육 내용

- ✓ ChatGPT 활용
- ✓ 캔바 기초 및 활용
- ✓ 미리캔버스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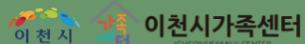
교육 기간

- ✓ 10/17~11/21 (총6회)
- ✓ 매주 토, 10:00~13:00
- ✓ 센터 디지털교육장

신청안내

- ✓ 10/1(목) 09:00~ 15명
- ✓ 센터 홈페이지 접수
- ✓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구성원, 외국인주민 등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9월 8일과 22일, 평택시로컬푸드재단 실습실에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 음식 만들기 프로그램 ‘한(韓)크룻 이야기’를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추석을 맞아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의 전통 명절 음식인 송편을 직접 만들며 추석의 의미와 우리나라의 명절 문화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한국생활에 보다 친숙하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참여자들은 송편을 직접 빚으며 전통 음식문화를 체험하고, 추석에 송편을 먹는 이유와 명절에 담긴 의미를 알아보았다. 음식을 함께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참여자 간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한국의 명절 문화를 서로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 참여자는 “이번이 한국에서 보내는 첫 추석인데, 직접 송편을 만들고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 한국의 전통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가족과 함께 추석을 보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생활에 더욱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지는 기자

일상에서 서로 다른 문화 존중하며 소통!

평택시가족센터, 내외국인 문화소통 다문화 이해교육 진행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9월 14일과 16일, 평택서 부노인복지관 회원과 부용초등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문화가족과 이주배경 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줄이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전문강사인 강민정 대표가 맡아 다문화 관련 용어와 통계를 비롯해 다문화 수용성 점검, 이주배경 부모와의 소통 방법

및 실전 상담 솔루션 등을 주제로 교육했다. 참여자들은 우리 사회의 다문화 현황을 살펴보고 일상과 기관 현장에서 다문화가족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넓혔다.

특히 다문화 수용성을 직접 점검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소통 방법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됐다.

한 참여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족과 이주배경 부모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돌아보는 기회가 됐다”며 “일상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며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기관 및 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 개선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지는 기자

평택시가족센터, 3군 어울림 군인 가족 체험학습 오감만족 가을여행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9월 12일, 진위면 키크농장에서 관내 육·해·공군 군인가족 18가족을 대상으로 군인가족 계절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6년 평택시 군인가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군 복무로 인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군인가족에게 다양한 여가활동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 간 소통과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샤인머스켓 수확을 비롯해 쿠키 만들기, 허브 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에 참여하며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가족이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협력하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기회가 됐다. 프로그램 마지막에는 참여소감을 나누며 가족과 함께한 하루를 돌아보았다. 이은미 센터장은 “평택은 육·해·공군이 모두 주둔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군인가족을 위한 지원과 관심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군인가족이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기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지는 기자

평택시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평택마을 소셜마켓 참여해 홍보

평택시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1~4호점은 지난 9월 19일, 함박산중앙공원에서 열린 소셜마켓 행사에 참여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육아나눔터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지역 행사와 연계해 공동육아나눔터의 다양한 사업과 이용 방법을 알리고,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동육아나눔터 홍보 부스에는 약 320명의 지역 주민이 방문했다. 부스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안내가 담긴 홍보지를 배부하고 카카오톡채널과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안내해 신규 구독자를 모집하는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함께 진행했다. 또한 이벤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캡슐토이 체험을 운영하고, 어린이에게는 풍선을, 성인에게는 칫솔세트를 제공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이지는 기자

가족 환경 실천 '폐장난감 수거'

평택시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은 평생노인복지관과 연계해 8월 4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시민 10명을 대상으로 '우리 가족 그린 실천-폐장난감 수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평생노인복지관과 놀면서 지키는 지구' 사업과 연계해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을 수거함으로써 재사용이 가능한 장난감은 기증하고 재사용이 어려운 장난감은 분해·분류해 자원으로 활용하는 폐장난감 순환 프로젝트이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과 나눔의 의미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일상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 시민들은 자녀의 성장으로 사용 빈도가 낮아졌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을 모아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에 전달했다. 특히 가정

서는 더 이상 활용하기 어려웠지만 버리기에는 아까웠던 장난감을 기증하며 장난감이 새로운 쓰임을 찾고 자원의 재사용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다.

참여 시민들은 "아이들이 사용하지 않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서 좋다", "아직 더 사용할 수 있어 버리기 아까웠던 장난감을 기증할 수 있어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은미 센터장은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바라보고 필요한 곳에 나누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자원의 재사용과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가족이 일상에서 환경보호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1~4호점은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과 가족 참여 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성장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공간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

평택시가족센터, 아빠랑 플레이데이 코딩



평택시가족센터는 9월 5일, 코딩엔플레이 평택고덕점에서 유아기부터 청소년기 자녀와 아버지 15가족, 총 30명을 대상으로 '아빠랑 플레이데이' 코딩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녀의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춘 코딩체험을 통해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배우고 소통하며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연령별 특성을 고려해 로봇코딩, 블록코딩, 텍

스트 코딩의 3단계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참가자들은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코딩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미션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역할을 분담하며 협력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자녀의 수준에 맞는 코딩활동을 함께 경험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아이와 함께 코딩을 배우고 미션을 해결하는 과정이 재미있었다", "평소 아이가 관심을 갖던 코딩을 함께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어 좋았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은미 센터장은 "앞으로도 자녀의 성장단계에 맞춰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가족상담의 전문성을 높여요!

평택시가족센터, 가족상담 2차 슈퍼비전



평택시가족센터는 9월 11일, 센터에서 가족상담사 17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족상담 2차 슈퍼비전'을 개최했다.

이번 슈퍼비전은 온가족보듬사업의 일환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상담 사례를 점검하고 상담사의 사례개념화 및 개입 역량을 높여 보다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부부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가족체계적 관점에서 장기화된 갈등의 상호작용 패턴을 살펴보고, 상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과 향후 개입 방향을 점검

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사티어(Satir) 경험적 가족치료를 바탕으로 부부의 행동 이면에 있는 감정과 욕구를 탐색하고, 정서적 친밀감과 안전한 의사소통을 회복하기 위한 상담 전략을 함께 살펴보았다.

참여 상담사들은 사례에 대한 질의와 의견을 나누며 다양한 상담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 실제 상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입 전략과 상담자의 태도를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상담 사례를 보다 다각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전문적인 상담 개입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은미 센터장은 "정기적인 슈퍼비전을 통해 상담사의 전문성과 사례개입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아빠랑 플레이데이 '농장체험'

평택시가족센터, 아버지역할지원사업 진행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9월 12일, 용인시 남사읍에 위치한 초록이 그린팜에서 5~7세 자녀와 아버지 13가족, 총 27명을 대상으로 '아빠랑 플레이데이' 농장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버지와 유아기 자녀가 함께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감하며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향기로운 허브를 활용한 오감치유, 고구마 수확, 소동물 교감 등 다양한 농장체험을 하며 자연을 오감으로 경험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향기로운 허브를 직접 채집하고 다양한 소품

을 만들며 허브의 향과 촉감을 느꼈다. 이어 농기구를 이용해 고구마를 직접 수확하고, 개미·지네·귀뚜라미 등 흙 속의 다양한 생물을 관찰했다. 또한 소동물과 가까이에서 교감하며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자연을 탐색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직접 채집하고 수확하는 활동에 함께 하며 서로 협력하고 자연스럽게 교감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아이와 함께 직접 고구마를 수확하고 자연을 관찰할 수 있어 즐거웠다", "평소에는 경험하기 어려운 농장체험을 하며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평택시가족센터는 아버지와 자녀의 소통 및 긍정적인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아빠랑 플레이데이'를 비롯한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1345 누르고 1 누르면!

인권침해 신고
직통번호

“
신고인의 비밀은 절대 보장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용방법

지역번호 없이 1345 누르고 1 누르기

이용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10시
(오후 6시 이후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상담서비스 운영)

이용대상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인은 누구나

제공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20개 언어

Facebook
인권침해 신고센터
바로가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2026년 홍보사업 이벤트

배로를 만났다면?
인증샷 찰칵!

이벤트기간

2026년 10월 1일 (목) 10:00 ~ 2026년 10월 28일 (수) 18:00

당첨자 발표

2026년 11월 2일 (월) 10:00 이후 당첨자 메세지 발송

당첨 경품

선착순 100명 다이소 모바일 상품권
* 단, 기간 사정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 품목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① 배로와 함께 사진을 찍어요!

- 홍보지, 행사장, 홍보물품 등 평택시가족센터 마스코트
"배로"가 함께 나온 사진이라면 모두 OK(적절 그림 배로 그림도 인정)
- 배로만 촬영한 사진과 합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수

② SNS에 인증해요!

[인스타그램]
- 평택시가족센터 공식 계정 팔로우
- 사진 업로드 후 @평택시가족센터(ptfc2012) 계정 태그
[네이버 블로그]
-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 업로드
- 게시물에 "평택시가족센터" 장소 등록
※ 공통 해시태그 ※
#평택시가족센터 #평택시가족센터마스코트 #배로

③ 구글폼으로 참여 신청!

- 홍보지 속 QR코드를 스캔해 구글폼에 접속한 후,
이벤트 참여 정보를 작성해 주세요!

구글폼 바로가기

④ 선착순 1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 증정!

- 이벤트 종료 후 게시물 및 참여 정보를 확인하여 모든 조건을 충족한
선착순 1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합니다.
- 결과 발표일까지 게시물을 유지한 참여자에 한해 추첨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족
센터

평택시가족센터 문의 | 031-615-3965

2026년 아버지지역화지원사업

함께 자라는 아버지 학교 + 아빠랑 플레이데이

아동기 자녀를 둔 아버지

1
회
기

대상

8~11세 아동기 자녀를 둔 아버지 14~20명

내용

함께 자라는 아버지 학교 - 아동기 아버지 성교육
(사춘기 전 신체·정서 변화 이해, 음란물 첫 노출 예방 등)

장소

평택시가족센터 108호 강의실(경기 평택시 서정로295, 북부복지타운)

일시

2026.11.07.(토) 10:00~12:00

2
회
기

대상

8~11세 아동기 자녀와 아버지 28명(14가족) / 아버지 + 자녀 1명

내용

아빠랑 플레이데이 - 아빠와 함께하는 농장체험
(배추·무 수확, 석박지·시래기 만들기, 불멍 즐기기 등)

장소

로렌츠 감성치유 사물체험(경기 평택시 팽성읍 대사로 144-4)

일시

2026.11.21.(토) 10:00~12:30

안내사항

- 프로그램 신청은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전화 접수는 불가하며, 비회원인 회원가입(아버지, 자녀 모두 회원가입)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아버지와 자녀 모두 신청해주셔야 정상 접수됩니다. 자녀만 신청한 경우에는 대기 접수로 전환됩니다.

- 체험 대상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기 접수로 등록됩니다.

- 본 프로그램은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참여자가 선정됩니다.
① 1·2회기 프로그램 모두 참석 가능한 가족
② 평택시가족센터 프로그램 미참여 신규 참여 가족
- 성교육 참여만 희망하는 경우에는 아버지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장체험(체험활동)만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불가하며, 아버지 교육(성교육) 참여가 필수입니다.

- 이번 교육 및 체험은 상반기 아버지 교육 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모집이 진행됨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 기간 사정에 의해 일정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프로그램 확정 시 확정 안내문자 발송 예정입니다.

가족
센터

평택시가족센터
문의 | 가족지원팀 031-615-3965

교육·체험 신청하기

[진로설계지원사업] 드림로드(Dream Road)

천체관측 직업체험

참여대상

다문화가정 자녀 (8~19세)
- A팀: 8~13세, 10명
- B팀: 14~19세, 10명
보호자 1명 필수 동행 및 신청

일시

2026.10.08.(목)
A팀: 19:00 ~ 20:00
B팀: 20:30 ~ 21:30

장소

평택 어린이 천문대
(경기 평택시 만세로 1712 2층)
체험장소까지 각자 이동

활동내용

• 달빛 탐사대(천체관측)

• 천문학자와의 만남

신청기간

2026.9.14.(월) ~ 2026.10.2.(금)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 신청

문의전화

가족교육팀
031-615-3904

A팀 신청

B팀 신청

가족
센터

평택시가족센터

'응급구조사 직업인 특강'

평택시가족센터, 진로설계지원사업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9월 12일, 북부복지타운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29명을 대상으로 진로설계지원사업 '드림로드(Dream Road)' 응급구조사 직업인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다양한 직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응급구조사의 주요 업무와 직업 특성을 살펴보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과 응급처치 방법을 배웠다. 이어 마네킹을 활용한 심폐소생술(CPR) 실습을 통해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직접 익히며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보다 생생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심폐소생술 실습은 응급구조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직접 체험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으며, 다양한 직업에 대한 관심을 넓히고 진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며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진로설계지원사업 '드림로드(Dream Road)'는 11월까지 운영되며, 직업체험, 대학탐방, 직업인 특강, 진학설명회, 해단식 등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자기주도적인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한 상에 담긴 가족 이야기'

평택시가족센터, 지역사회 네트워크사업



평택시가족센터는 9월 16일, 추석을 맞아 평택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민영순) 회원들과 결혼이민자가 함께하는 '추석 차례상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인 추석과 차례상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사회 여성단체 회원들과 함께 전통 명절음식을 직접 만들며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결혼이민자와 평택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함께 추석 차례상에 올리는 음식의 의미와 차례상 차림 방법을 알아보고, 다양한 전통 명절음식을 직접 만들어 차례상을 차리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음식

준비와 차례상 차림 과정에서 서로 역할을 나누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결혼이민자들에게는 한국의 명절문화와 전통음식을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평택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에게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지역주민들과 만나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는 계기가 됐다. 이은미 센터장은 "결혼이민자와 지역사회 여성단체 회원들이 함께 명절음식을 만들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정을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가족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지역 내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건강한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지역공동체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사물놀이 '느닷' 공연 관람

평택시가족센터, 지역사회 네트워크사업



평택시가족센터는 양평문화재단과 연계해 지난 9월 16일, 지역사회 내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사물놀이 느닷' 공연 관람을 진행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다양한 가족에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이 함께 공연을 관람하며 소통과 문화 향유의 시간을 갖도록 지원했다.

참여 가족들은 전통 사물놀이의 흥겨운 가락과 역동적인 연주를 가까이에서 관람하며 우리 전통음악의 신명과 흥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전통문화예술을 가족과 함

게 경험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공연을 즐기는 등 전통 문화를 체험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공연이 다양한 가족들이 문화예술을 함께 즐기며 소통하고 가족 간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가족이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가족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관계 증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고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국립발레단 '지젤' 공연 관람

평택시가족센터, 지역사회 네트워크사업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9월 18일, 평택시문화재단과 연계해 관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국립발레단의 대표 레퍼토리 '지젤' 공연 관람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에게 평소 접하기 어려운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할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이 함께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소통하고 교류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다문화가족들은 '지젤' 공연을 관람하며 클래식 발레의 아름다움과 예술적 감동을 직접 경험했다. 가족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며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공연에 참여한 한 가족은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발레 공연을 가족과 함께 관람할 수 있어 좋았다"며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공연 관람을 통해 다문화가족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다문화가족들이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경험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다양한 가족지원 및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8월 24일부터 안중월드바리스타커피학원에서 결혼이민자 15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바리스타 2급 자격증반’ 교육을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결혼이민자들이 바리스타 직무에 필요한 실무기술을 익히고 자격증 취득을 통해 향후 취업과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직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커피의 기초이론을 비롯해 에스프레소 추출, 우유 스티밍, 카푸치노 제조 등 바리스타 실무기술을 단계적으로 익혔다. 커피머신과 각종 도구를 직접 다루며 반복적인 실습을 통해 자격시험을 준비했으며, 그 결과 총 15명 중 14명이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 교육 참가자는 “처음에는 커피머신을 다루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지만 반복해서 연습하면서 점차

자신감이 생겼다”며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되어 기쁘고, 이번에 배운 기술을 앞으로 취업에도 활용해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교육에 꾸준히 참여하며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자격증 취득에 도전한 참여자들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뜻깊다”며 “이번 교육에서 쌓은 경험과 기술이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하고 경제활동의 기회를 넓혀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들이 자신의 적성과 강점을 살려 직업을 탐색하고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다양한 취업지원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자격 취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평택시가족센터, 지역사회 네트워크사업 후원품 전달식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9월 14일, 한국철도공사 평택역으로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이웃을 위한 참치세트 40개를 후원받았다. 이번 후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가족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명절의 의미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후원받은 참치세트 40개는 평택시가족센터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전달되어, 다양한 가족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김학수 평택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며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추석을 앞두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한국철도공사 평택역에 감사드린다”며 “후원해주신 물품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잘 전달되어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지은 기자

평택 1인가구, 직접 만들고 나누며 건강한 식생활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9월 3일과 10일, 17일 등 3일에 걸쳐 1인가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인가구의 건강한 식생활과 자립적인 식생활 관리 역량을 지원하는 ‘식생활개선다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식생활개선다이닝’은 1인가구가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요리법을 배우고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며 건강하고 즐거운 식생활을 꾸려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이 함께 요리하고 완성한 음식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올해 식생활개선다이닝 요리편은 총 9회기에 걸쳐 건강식·간

편식·홈파티편으로 진행됐다. 5월에 진행된 건강식편에서는 ▲마녀스프 ▲월남쌈 ▲쌈밥도시락을, 6월에 진행된 간편식편에서는 ▲돼지고기마늘쫀 한그릇 덮밥&두부스테이크&오이탕탕이 ▲포피아를 ▲블랙페퍼쉬림프&가지튀김&갈릭라이스를 만들며 다양한 식재료와 조리법을 익혔다. 이어 홈파티편에서는 ▲스키야키 ▲함박스테이크&샐러드 ▲단호박오리찜&두부쌈말이를 주제로 요리 실습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강사의 설명에 따라 재료 손질부터 조리까지 경험하고, 완성한 음식을 함께 나누며 즐겁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9회기를 끝으로 올해 식생활개선다이닝 요리편이 마무리됐으며, 11월에는 10~12회기 베이킹편을 운영할 예정이다. 베이킹편에서는 다양한 베이킹 활동을 진행하고, 마지막 12회기에는 참여자들이 직접 만든 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나누는 나눔 봉사활동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평택시가족센터는 1인가구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평택시가족센터, 아버지역할지원 아빠랑 플레이데이 '영아기 체험'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9월 19일 안성시 양성면에 위치한 ‘아리따운 열매’에서 36개월 미만 영아기 자녀와 아버지 15가족, 총 30명을 대상으로 ‘아빠랑 플레이데이’ 농장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버지와 영아기 자녀가 함께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감하고 가족 간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아버지와 함께 사인머스켓을 직접 수확하며 수확 과정에서 역할을 나누고 협력했다. 농장에 마련된 놀이시설에서는 자녀와 함께 자유롭게 놀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각 가정에서 준비한 도시락도 함께 먹으며 가을 소풍을 즐겼다. 특히 아버지와 자녀가 수확과 놀이에 함께 참여하며 서로의 반응을 살피고 교감하는 과정에서 가족 간 친밀감을 높일 수 있었다. 이지은 기자